

2020 국별 진출전략

헝가리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경제) 대외 경제 불안, 국내 소비 및 투자도 감소세 예상	4
나. (정치) 4선 3연임의 오르반 총리의 정책 기조 유지	4
다. (외투) 외국인 신규·증액 투자유치 계속 및 공급사슬(SC) 현지화 계속	4
라. (프로젝트)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의 본격 개시, 물류 환경 개선 기대	4
마. (동방정책) 높은 대(對)EU 의존도 완화 노력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2. 시장 분석	14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4
나. 교역	15
다. 투자진출	19
라. 프로젝트	22
마. 공공조달	23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5
가. 교역	25
나. 투자	26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8
III. 진출전략	29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9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0
3. 한-헝가리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8
4. 진출 시 유의사항	44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45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7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8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9
부 록	
對헝가리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50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하락) 헝가리 경제성장률 2019년 3.6%, 2020년 2.7% 전망(IMF)

- 세계 경제둔화, 국가 간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 하강,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대외경제 환경 악화
- 2018년까지 성장세였던 국내외 투자가 2019년부터 정체, 2020년부터는 감소
 - 최근 헝가리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국내외 투자 프로젝트가 2020년에는 신규 주택건설보조금 (CSOK)*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감소, 이에 따라 일자리 증가도 정체될 전망
 - * 신규 주택건설에 대한 부가세 인하(27% → 5%, 2016년) 혜택을 연장 없이 2019년에 종료
- 노동력, 인프라 등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 한계 직면에 따른 성장둔화
 - 헝가리 노동력 생산성 지수(EU 집행위)* (2013년) 73 → (2015년) 69.8 → (2017년) 68 지속 악화
 - * EU 28개국 평균(100) 기준, 2017년 독일(106.2), 오스트리아(116.9), 폴란드(75.9), 체코(80.5), 슬로바키아(80.9)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9.8	9.8	9.7	9.7	9.76	9.74
명목 GDP	십억 달러	122.8	125.8	163.5	156.39	168.78	177.73
1인당 명목GDP(PPP)	달러	26,835.5	27,801.2	29,558.71	31,560.73	-	-
경제성장률	%	3.54	2.28	4.14	4.94	3.6	2.7
실업률	%	6.85	5.5	4.19	3.88	3.5	3.4
물가상승률	%	-0.07	0.42	2.41	2.81	3.2	3.1
정부부채 (% of GDP)	%	76.73	75.98	73.58	71.27	66.6	65.0
총수출 (對韓 수출)	백만 달러	100,293	102,978	113,674	123,850	-	-
총수입 (對韓 수입)	"	735	651	706	694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90,746	91,400	103,782	115,971	-	-
외환보유고	백만 달러	1,016	953	1,206	1,967	-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9,546	11,578	9,892	7,879	-	-
Outbound FDI	백만 달러	33,024	25,824	27,879	30,117	-	-
Inbound FDI	백만 달러	279.33	281.52	274.43	270.21	-	-
		-16,778.7	8,303.0	1,118.9	1,990.8	-	-
		-14,797.3	-5,752.9	3,260.9	6,389.3	-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IMF, EU 집행위, Eurostat, 헝가리통계청(KSH), 헝가리중앙은행(MNB), WTA, UNCTAD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경제) 대외 경제 불안, 국내 소비 및 투자도 감소세 예상
- (정치)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 효과 지속 기대
- (외투) 외국인 투자의 감소, 관련 일자리 창출도 하강
- (프로젝트)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의 본격 개시, 물류 환경 개선 기대
- (동방정책) 헝 정부의 EU 의존도 경감을 위한 아시아 국가와 협력강화 의지

가. (경제) 대외 경제 불안, 국내 소비 및 투자도 감소세 예상

기업투자 및 가계 소비 감소로 인해 경제 기존대비 성장률 둔화 예상

- 기업투자 및 가계 소비가 2018년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됨
-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어, 헝가리의 구매력 신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세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

헝가리 임금인상률·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임금인상률	3.0	4.3	6.1	12.9	11.3	10.6%	-
물가상승률	-0.22	-0.07	0.42	2.41	2.81	3.2	3.8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헝가리 통계청, IMF

- 기업의 투자는 양적 확대보다는 인프라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둘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미할리 바르가(Varga Mihály) 재무부 장관은 부다페스트 경쟁력 콘퍼런스에서 생산력 증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

나. (정치) 4선 3연임의 오르반 총리의 정책 기조 유지

오르반 총리의 두 마리 토끼 잡기 : 보수적 정치 + 외국 자본 유치

- 오르반은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4선 3연임 중인 총리이며, 연임에 따른 정책 기조의 유지에 따라, 친기업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현지 투자 전문가들은 오르반 정부의 정책 지속성 확보로 경제성장 향후 3.0%대 유지 기대하며, 한편 EU 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경제의 질적 성장 등 향후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점 지적

- 헝가리는 보수적인 정치 캠페인과 함께 외국 자본에 근거한 성장이라는 두 가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음
- 2019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극우세력, 민족주의, 보수주의 성향의 세력이 확장되며, 즉, 현재 헝가리의 경제 정책은 한국기업들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으나, 유럽 전반을 지배하는 분위기와 정책 모멘텀에 따라 그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임

다. (외투) 외국인 신규·증액 투자유치 계속 및 공급사슬(SC) 현지화 계속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수출형 경제

- 헝가리 외국인 투자는 민간 축적자본이 적은 헝가리 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2019년 9월 기준 최신)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FLOW 기준) : (2015) -14,797.3 백만 달러 → (2016) -5752.9 → (2017) 3,260.9 → (2018) 6,389.3
-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독일 3대 완성차 메이커인 Benz, BMW, Audi가 모두 헝가리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Daimler, Suzuki를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공급사 투자유치 가속화, 자동차·부품 분야는 투자유치 1순위
- R&D 센터, 기술 강화 투자 인센티브 등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 변화 등 국가 성장의 신동력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 EU 기준 준수에 따라 인센티브 내용은 국내-외국 기업 간 무차별적이나, 헝가리 투자청의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

라. (프로젝트)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의 본격 개시, 물류 환경 개선 기대

기존 시설 개선 및 확장을 목표로 한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개시

- 헝가리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 기간을 교통 인프라 집중 개발로 지정, 고속도로는 약 900km 정도 추가 확장될 것이며, 기존 지하철 및 철도 시설도 개보수 및 확장 공사를 2020년 동안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
- 2014~2020년(7개년) 배정된 EU 기금 중 83%를 2017년까지 소진, 2019년부터는 잔여 기금의 상당수가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음

헝가리 주요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분야	기간	규모(유로)	지역	담당기관
Budapest-Airport Railway Construction	지하철·철도	2019~2022년	250백만	부다페스트	NIF Zrt. (National Infrastructure Company)
HEV-M2 Subway Connection	지하철·철도	2019~2022년	400백만	부다페스트	BBK (Budapest Public Transportaion Company)
M1 Subway Reonstruciton and Extention	지하철·철도	2019~2022년	100백만	부다페스트	BBK (Budapest Public Transportaion Company)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

마. (동방정책) 높은 대(對)EU 의존도 완화 노력

EU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동방 국가와 협력 천명

- 외국인 투자의 89.0%(형 국립은행, 2016년 기준), 대외수출 80.8%, 수입 75.8% 의존(형 통계청, 2018년 기준)
 - 높은 EU 역내 FDI 및 교역 의존도 개선 노력, 2008년 유럽 경제위기 당시 서유럽의 대규모 자본 회수로 IMF 등 구제금융 경험
- 형 정부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을 천명하고, 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 싱가포르 등과 협력 강화에 주력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1년 1~2회씩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간 철도 인프라 건설 추진
 - 한국은 아시아 최대 헝가리 협력국으로 양국 간 1·2차 경제공동위 개최
-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두산전자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 등으로,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2019년 헝가리 외국인 투자 1위국으로 도약*
 - * 2019년 투자액 통계는 공식 발표 이전이나, 형 투자청장의 2019년 각종 연설에서 지속 언급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 헝가리 총 투자(형 로컬 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금액의 29%인 6.1유로로 투자 1위국을 기록한 바 있음(형 투자청 제공 자료 근거)
 -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립을 위해 투자, 대중소 동반 진출 형태로 협력 중소기업 진출 확대 지속 전망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4선에 성공한 오르반 총리와 이로 인한 정책 지속성 기대
- (경제) EU 기금 집행 축소 및 대외여건 불안으로 경제성장률 2.7%로 전년 대비 하락 예상
- (산업) 자동차·전기전자·의료·ICT·식품 등 헝가리 주산업 중심으로 성장세 계속
- (정책) 중장기 개발계획인 '세체니 2020'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가. 정치 환경

오르반 총리 연임에 따른 정책 지속성 기대

- 오르반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긍정적 경제 전망
 - 오르반 정부가 유지해온 저금리(0.9%), 세금 인하(법인세 9%, 고용주세 17.5%) 등 친기업 정책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0년까지 215억 유로 상당의 EU 기금 수혜를 기대 중이며, EU 투자 자금의 유입, 저금리 등으로 자동차·건설 분야와 같은 주요 산업 부문에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이민 정책에 대한 오르반 정부-EU 간 이견
 - 긴장이 심화되어 성장이 하향곡선을 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며, 오르반의 EU 난민 및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EU 집행위의 난민 정착제도 도입에 따른 투자금 지원과 충돌, 헝가리에 대한 EU 투자자금 축소로 이어져 헝가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집권여당인 피데스당의 친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은 우리기업에 유리
 - 오르반 정부는 서구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관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동방정책을 추진

헝가리 현재 국회 의석 점유비율

정당	2018년	2016년	2014년	2010년
헝가리사회당(MSZP)	20	29	-	59
청년민주당(FIDESZ)	133	114	133	263
우파연합(Jobbik)	26	24	23	47
대안정당(LMP)	8	5	5	16
기독교민주국민당(KDNP)	FIDESZ와 연합	17	-	-
무소속, 기타 정당	12	10	-	1
민주야권연대(2014년)	-	-	38	-
총 의석 수	199	199	199	386

주 : 2010년까지 총 의석수는 386석, 2014년부터 199석으로 축소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헝가리 의회

나. 경제 환경

경제 전망 : 2020년 헝가리 경제성장률 2.7% 예상(IMF 기준)

- 헝가리 경제성장률, 2017년 4.14%, 2018년 4.94%로 2년 연속 4%대 기록, EU 기금 예산집행 마감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9년 3.6%, 2020년 2.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2015년 2007~2013년 EU 기금 예산집행의 마감 영향으로 2016년 잠시 경제성장률 2.0%를 달성한 것을 제외, 3~4%대의 높은 성장률 유지
- 최근 헝가리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은, ① 소비 활성화, ② 수출 확대, ③ EU 기금 프로젝트, ④ 외국인 투자증가임

(소비) 소비자 물가, 2017년부터 가파른 상승 지속

- 2017년 이전에는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 2017년 2.41% 기록, 2019년에는 3.2%로 상승 예상
 - * 소비자 물가지수 : (2014) -0.22% → (2015) -0.07% → (2016) 0.42% → (2017) 2.41% → (2018) 2.81% → (2019 예상) 3.2% → (2020 예상) 3.8%
- 실질 급여 및 최저임금 인상, 사상 최대 실업률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 형 인력업체인 Hays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응답자의 66%가 내년도 임금인상을 기대한다고 답변하며, 한편, 2017년 응답률 79%에 비해 낮아진 것이 특징
 - 해외 노동력 유출방지를 위해 형 정부는 기업들의 임금지불 능력 향상을 위해 2016년 고용주세, 법인세 감면 법안 마련

헝가리 노동 관련 세금 조정 계획

(단위 : 포린트,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최저임금(HUF)	110,000 (약 360유로)	127,500 (약 420유로)	138,000 (약 450유로)	149,000 (약 490유로)	161,000 (약 530유로)
고용주세	27	22	19.5	17.5	15.5
법인세	19	9	9	9	9

주 : 정부는 향후 매년 고용주세를 단계적 감면 계획을 발표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헝가리 정부

(수출)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증가 속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유로존 경기회복으로 최근 4년간 대외수출을 23.48% 확대해오고 있으나, 주요국의 긴축과 무역 전쟁 등에 따라 수출여건 악화
- 유로화 및 포린트화 약세, 사상 최저 수준금리 유지로 대외수출환경이 개선된 측면이 있어, 대외 환경이 어려워도 수출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 헝가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3개월물 예금금리를 2016년 5월부터 0.9%로 계속 유지 중

(EU 기금) 2014~2020 EU 기금 215억 유로 배정, 차기 EU 기금 규모는 감소 예상

- 총 EU 기금 215억 유로 배정, 헝가리 정부의 추가 매칭 예산은 38억 유로
 - 2014~2020 EU 기금 215억 유로(전체 EU 기금의 6.1%), 헝가리 정부의 매칭예산과 더불어 경제, 사회, 보건, 환경, 인프라 등 각종 사회문제 및 개발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중
- 각종 사회 인프라(SOC)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EU 기금 집행 및 헝가리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헝가리 건축 시장은 2020년까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기대
- 2021~2027 EU 기금은 잠정적으로 201억 유로(전체 EU 기금의 5.45%)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EU 기금 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폭이 좁아질 것으로 분석

(외국인 투자) 헝가리 경제의 중심축 외국인 투자, 증가세 계속

- 외국인 투자, 헝가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
 - 1989년 경제개방 이후, 민간에 축적된 자본이 없던 헝가리 산업 전반은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체제 재편

최근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국인 투자유치	7,806.6	-14,797.3	-5,752.9	3,260.9	6,389.3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FLOW 기준)

- Daimler, Audi, Bosch 등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분야를 중심, 외투 증가
 - 유럽 신차 시장 경기호조로 완성차 브랜드 증액 투자 결정
 - * BMW 10억 달러, Mercedes Benz 1.1억 달러, 아우디 1,100만 달러, BYD 2,200만 달러 등
 - Bosch, 삼성 SDI 등 자동차 분야 신기술 투자유치 성공
 - * Bosch 자동주행차량 관련 R&D 시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설
- R&D, SSC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유치 경주
 - 헝가리 정부는 2017년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R&D 센터, SSC(서비스 공유센터) 등 양적인 고용 창출보다는 질적 수준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개편
 - Lufthansa, British Telecom, UN 기구 등 다양한 언어구사가 가능한 헝가리 인력을 활용한 SSC 센터 설립 증가

다. 산업 환경

헝가리 주요 산업별 특징



자동차 산업

- 자동차 산업은 헝가리 제조업 생산의 30.2%, GDP의 23.2% 비중을 차지하는 등 헝가리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여 중
 - 3개의 완성차 업체(Suzuki, Audi, Daimler)가 헝가리에 제조시설을 갖고 있음

- 이는 EU 전체 생산량의 3%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중유럽 지역에서 자동차 산업 허브 국가인 슬로바키아(90만 대 생산), 체코(120만 대 생산)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자동차 부품 TOP 20 TIER 1 기업 중 15개사 등 Tier 1 기업 48개사가 헝가리에 진출
- 헝가리 자동차 분야는 산학 R&D 또한 활발하며, Bosch의 자동주행 차량트랙을 비롯한 R&D 투자, 중국 BYD 및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자동차 산업 신성장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집중

전기전자 분야

- 전자 분야는 전체 헝가리 제조업의 16.3%(GDP의 12.5%)를 차지
 -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의 주요 전자 제품 생산국이며, 중·동부 유럽 전자 제품 생산의 26%를 차지하며, 약 11만 명이 전자 제조업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유럽계 전자제조전문서비스(EMS) 공급업체 중 6개의 대형업체와 다국적 전기 전자 기업들의 OEM이 헝가리에 소재하였으며, 전체 생산량의 92%를 수출
- * GE, 삼성전자, IBM, Bosch, Jabil, Flextronics, Foxconn, Sanmina, Zollner, Videoton 등

제약·의료 기술

-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헝가리의 제약·의료 산업은 자국 경제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분야 중 하나
 - * 1928년 비타민C 발견에 성공하는 등 의학·제약 분야 기초과학 강국
- 헝가리의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발전되었고, 중·동부 유럽, 발칸 지역, 동유럽 및 아시아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생명과학 기업의 생산거점이 되고 있음
- 제약 및 의학 업체는 주로 4개의 생명과학 클러스터(부다페스트, 데브레첸(Debrecen), 세게드(Szeged), 페치(Pécs))에 위치함
- 셀트리온 헬스케어 및 헝가리 에기스(Egis) 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유럽·CIS 지역 판매 마케팅 협력으로 2015년 헝가리는 한국의 제3위 제약 수출국으로 부상함

ICT(정보통신기술)

- 정보기술통신 분야의 생산량은 50.1억 달러로 전체 GDP의 4.9%를 차지
 - 전기통신, IT 아웃소싱, IT 서비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한 헝가리 ICT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으며, 컴퓨터 조립 및 전기통신 장비 제조업은 중·동부 유럽의 ICT 분야를 이끌고 있음
- 하드웨어 제품 업체는 대부분 중앙 트란스다누비아 지역(코마롬(Komárom)의 NOKIA, Vác(바치)의 IBM)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은 주로 부다페스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IT 회사는 기술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헝가리의 ICT R&D는 전체 R&D 비용 중 1/4 이상을 차지함
 - 프로세스 제어 소프트웨어, 게임 프로그램, 내비게이션 시스템 관련 지리 정보기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의 중추적 역할
 - 헝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바이러스 방지, 생물 정보학, IT 보안으로 유명하며, 대표적 기업으로는 Ericsson, Oracle, Gameloft가 있음

식품 산업

- 자국 산업 중 식품 산업의 생산량 점유율이 지난 10년간 감소했지만, 식품 가공 산업은 여전히 자국 경제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식품 산업은 헝가리 전(全) 수출의 5%를 차지함
 -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에서 유일한 농업·식품 산업 순수출국이나 식품 산업 업체 중 85% 이상이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둔 영세업체임
- 최근 경제성장에 이은 소비자 구매력에 힘입어 식품 산업이 가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헝가리 인구성장률 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라. 정책·규제 환경

헝가리 중장기 경제 정책 : 세체니(Szechenyi) 2020

- 헝가리는 Europe 2020의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체니 2020’이라는 중장기 경제 정책을 마련, 2014~2020년 EU 펀드 집행 실시
 - Europe 2020 : EU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고용, R&D, 교육, 기후·에너지, 빈곤퇴치 등 5개 분야에 EU 집행위가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2020년까지 목표를 부여하고 있음

Europe 2020 목표

(단위 : %, 만 명)

구분	내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목표 (2020년)
1. 고용	20~64세 인구 중 고용률	63.0	66.7	68.9	71.5	75
2. R&D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1.4	1.4	N/A	-	1.8
3. 환경·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	17.1	17.4	N/A	-	10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비율					
4. 교육	18~24세 인구 중 조기졸업비율	9.5	9.5	N/A	-	13
	30~6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율					
5. 사회통합	빈곤 및 사회적 배타 위험 인구	11.9	11.4	11.6	12.4	10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Eurostat

○ 세부내용

- 총 사업기간 : 2014~2020년(7년)
- 총예산 : 257억 유로(재원 : EU 기금 219억 유로+헝가리 정부 지원 38억 유로)
 - * 프로젝트 수행 비용의 50~75%를 EU 펀드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충당하는 매칭펀드 형태
- 운영 프로그램(Operative Programme) 구성 및 예산

2014~2020년 OP별 헝가리 EU 펀드 배정액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총 예산	EU 기금	헝가리 국고	EU 기금 배정비율
1. 환경·에너지	3,784	3,216	568	14.9
2. 경제개발	8,813	7,733	1,080	35.9
3. 인력개발	3,069	2,615	454	12.1
4. 교통개발	3,919	3,331	588	15.5
5. 공공행정	935	794	141	3.7
6. 지역개발	3,970	3,389	581	15.7
7. 경쟁력개선	927	463	464	2.2
총합	25,417	21,541	3,876	100.0

주 : 세체니 2020에서 농촌개발 OP와 어업개발 OP를 제외
 자료 : 세체니 2020 웹 사이트

2 시장 분석

- (특성)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 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경제
- (수출) 독일 등 EU 회원국과의 교역 의존도 점차 심화
- (투자) 유럽인 투자 강세, 헝 정부의 동방정책은 기회 요소, 최근 최저실업률은 애로사항
- (프로젝트) 2014~2020 EU 기금 프로젝트 발주, 헝 세체니 2020 계획 주목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헝가리 경제규모

인구 (만 명)	GDP (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대(對)한국 수입 (달러)	대(對)한국 수출 (달러)	한국 진출기업 (개사)
977.3	1,563.9	31,560(PPP)	19.7억	6.9억	173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헝가리 통계청, HBI

산업 구조 : 체제 전환 이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중심 국가

- 중부 유럽과 발칸반도, 중앙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과 낮은 인건비로 유럽의 생산·물류 요충지 역할
- 제조업이 GDP의 26.0%(EU 평균 20.8%), 특히 자동차(제조업 전체의 30.6%), 전기전자(22%), 제약·의료, ICT 등이 중심 산업
- 외국계 기업이 제조업의 중심,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물류·R&D 수행 중
 - * (자동차) 벤츠, 아우디, 스즈키 등, (전자) 삼성, IBM, 지멘스 등, (의료) 머크, 파이저, GE 등
- 노동임금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공유센터(SSC) 및 R&D 센터 대(對)헝가리 투자진출 증가 추세
 - * (SSC, Service Shared Center) : IBM, 루프트한자, British American Tobacco, UNHCR, UNICEF 등
 - * (R&D센터) : Bosch, Ericsson, GE, (韓) 현대 중공업 등

수출지향적 경제구조

- 헝가리의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 소유이며, 헝가리 내수시장 보다는 유럽을 위한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자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음
 - 따라서, 헝가리의 수출입은 EU의 수출입과 연계된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EU의 경제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증가 또는 하락하는 구조

- 2010년 5월 출범한 오르반 정부(2018년 4월 총선 승리로 재집권)는 EU에 과도하게 연계된 헝가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등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

나. 교역

헝가리의 대외 수출 동향

- 대외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세
 - (수출입) 헝가리는 지난 6년간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제조업 거점 형태를 보이는 헝가리는 수출과 수입이 맞물려 증가한 것임
 - (무역수지) 2009년부터 무역수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며, 무역수지 규모는 2018년 특이치를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임

헝가리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불,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2년	79,952	0.7	73,297	0.7	6,655
2013년	81,294	1.7	74,739	2.0	6,555
2014년	84,506	4.0	78,232	4.7	6,274
2015년	90,460	7.0	81,865	4.6	8,595
2016년	92,990	2.8	83,265	1.7	9,725
2017년	100,680	8.3	92,602	11.2	8,078
2018년	104,885	4.2	99,327	7.3	5,558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헝가리 통계청

- EU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
 - 유럽발 경제위기 당시 유럽 자본이탈로 구제금융을 받았던 헝가리는 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나, EU에 대한 대외수출 의존도는 매년 점점 더 증가 중인 추세임

주요 지역별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수출					수입				
	2016	2017	2018	비중	증감률	2016	2017	2018	비중	증감률
EU 28	73,930	80,107	84,702	80.8	5.4	65,056	70,997	75,086	75.6	5.4
EU 28제외	19,060	20,573	20,182	19.2	16.2	18,209	21,605	24,241	24.4	-7.1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헝가리 통계청

☛ 우리나라의 대(對)헝가리 수출 동향

- 헝가리 교역 현황
 - 2018년 헝가리 수입의 75.8%는 EU 국가로부터 발생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EU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감소해오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국가별로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중국 순이며, 우리나라는 13위를 기록함

헝가리의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 억 달러, %)

국가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8/2017년 증가율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순위	
총액	938.9	100.00	1075.6	100.00	1216.8	100.00	-	13.13
독일	245.5	26.15	272.3	25.32	300.5	24.70	1	10.37
오스트리아	60.3	6.42	67.9	6.31	76.4	6.28	2	12.54
중국	58.3	6.20	63.1	5.86	75.5	6.21	3	19.75
폴란드	51.3	5.46	58.7	5.46	67.9	5.58	4	15.69
네덜란드	46.4	4.94	53.6	4.98	61.9	5.09	5	15.55
체코	45.4	4.83	51.5	4.79	59.9	4.92	6	16.30
슬로바키아	49.9	5.32	56.7	5.27	58.9	4.84	7	3.89
러시아	26.3	2.81	39.3	3.65	57.3	4.71	8	46.10
이탈리아	44.6	4.75	50.4	4.69	55.5	4.56	9	10.15
프랑스	39.8	4.24	42.4	3.95	45.1	3.71	10	6.23
루마니아	29.1	3.10	31.9	2.97	34.2	2.81	11	7.31
벨기에	21.5	2.29	23.6	2.20	28.1	2.31	12	19.03
한국	10.6	1.12	14.8	1.38	23.4	1.92	13	58.10
영국	18.4	1.96	21.0	1.95	22.2	1.82	14	5.87
스페인	16.0	1.70	17.9	1.66	19.7	1.62	15	10.19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의 대(對)헝가리 주요 수출품목 동향
 - 한국의 대(對)헝가리 주요 수출품은 HS코드 기준으로 의약품, 평판디스플레이, 축전지, 기타 기계류 등으로 바이오 제품, TV 부품, 기계류, 자동차 부품, 화학소재가 주를 이룸
 - * TV 부품, 기계, 화학소재 등은 헝가리진출기업인 삼성전자, 한국타이어가 주요 수입처
 -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유럽 및 CIS 지역 수출 마케팅을 위해 파트너사인 EGIS가 위치한 헝가리로의 한국 제약수출이 집중됨
 - 독일이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상위 수출국이며, EU 역외국 중에서는 중국이 기계류, 과학·의료기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점유율을 보임

2018년 한국의 대(對)헝가리의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경쟁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상위 10위 수출 품목	한국		점유 1위		점유 2위		점유 3위	
	점유 순위	수출액	국가 명	수출액	국가 명	수출액	국가 명	수출액
1 30 (제약 제품)	4	706	독일	940	벨기에	740	프랑스	729
2 85 (전기기기·TV·VTR)	11	636	독일	6,693	중국	3,523	네덜란드	2,268
3 84 (보일러·기계류)	9	552	독일	6,507	중국	1,772	이탈리아	1,083
4 87 (일반차량)	63	120	독일	4,479	체코	1,402	폴란드	901
5 90 (광학·의료·측정· 검사·정밀기기)	12	70	독일	798	중국	241	오스트리아	164
6 39 (플라스틱과그 제품)	18	55	독일	1,784	체코	366	오스트리아	362
7 59 (침투, 도포한직물)	2	35	독일	92	한국	35	폴란드	20
8 38 (화학 제품)	15	29	독일	278	프랑스	175	오스트리아	91
9 73 (철강 제품)	19	27	독일	865	이탈리아	284	오스트리아	186
10 72 (철강)	19	23	독일	577	슬로바키아	428	이탈리아	366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Global Trade Atlas

○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 헝가리는 EU 소속 국가로 한-EU FTA로 관세장벽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
- EU 공통 강제인증으로 CE가 있으며, 그 외의 유해물질 제한, 환경안정성, 에너지 효율을 위한 인증이 있음

주요 인증제도

CE (EU 공통, 공산품)	RoHS (EU 공통, 전자 제품)	REACH (EU 공통, 화학물질)	헝가리 친환경 인증 (헝가리, 자율)
			

자료 : 해당 인증제도 공식 사이트

- 다만, 상당수 헝가리 국민의 경우, 자국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헝가리 내 유통을 위해서는 헝가리어 라벨링이 필수임

- 또한, 헝가리는 설탕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비만세가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어 시장 진출을 위해 이와 같은 현지에서 적용 중인 각종 특수규제에 대해 사전 조사가 필요함

* 비만세의 경우 2012년 헝가리 도입됐으며, 100mm당 8g 이상 설탕 함유 시, 세금이 부과

수출 성공 사례 : 히팅케이블 F사(헝가리 수출)

- 난방용 정온선(Self Regulating Heating Cable) 제품으로 헝가리 시장에서 샘플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아 헝가리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약 3.2km 물량의 난방용 정온선이 수출됨

HS코드(6단위)	세부 품목	대한(對韓) 수입증가율(2016년)	대한(對韓) 수입액
8516.10	난방용 정온선	71.4%	28.8만 달러(수입 점유율 9위)

- **제품의 비교우위** : 헝가리 난방용 정온선 시장은 일종의 레드오션이나 저가 저품질 중국산 제품보다 내구성이 높은 고품질 제품에 대한 헝가리 시장 선호도에 따라 시장 진출이 가능했으며, 헝가리 샘플 판매 결과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품질 대비 약 20%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음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성약 소요기간	22개월/2013년 3월(지사화 가입, 첫 접촉) ~2015년(성약)
바이어 발굴경로	<input type="checkbox"/> Telemarketing <input type="checkbox"/>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Sales Rep. <input type="checkbox"/> PR ag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온라인서치)
바이어 D/B	. HBI, Kompas, Google 등
유망 전시회	. Construma/헝가리 최대 건축 전시회(매년 4월경/개최주기 1년)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 사항** : (내구성) 헝가리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지만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내구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 (샘플테스트) F사의 경우 시장 테스트를 통해 가격 대비 매우 높은 품질이 검증됐고, 이에 따라 성약까지 연결됨 (현지 전시회 활용) 헝가리 건축협회에 따르면 현지 건축자재 시장이 2020년 까지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유망한 현지 디스트리뷰터 발굴 및 제품인지도 강화를 위해 현지 전시회 참가를 권고

유의 사례 : 무역사기

- 최근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무역사기 건이 월 1~2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무역관에서는 현지 경찰의 협조를 구해 계좌동결 및 수사요청 등을 진행 중임

무역사기 유형

- ① (선수금 요구)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제품에 대한 공급, 시중가보다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공급을 약속하고, 약 30% 상당의 선수금을 미리 요구하는 유형임
→ 실제로 존재하는 헝가리기업을 사용하거나 버젓이 가짜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기수법이 매우 치밀함
- ② (이메일 해킹) 바이어와 공급자 간 이메일을 해킹하여 기존 거래처에서 사용하던 계좌를 갑작스럽게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계좌주명이 달라도 입금이 진행되는 현지 상거래 특성을 악용하기도 함
- ③ (서류 위조) 헝가리어, 현지 주소 등을 도용한 홈페이지, 서류인지 확인 필요하며, 헝가리어 회사명, 현지 주소, 현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사칭하여 가짜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서류를 꾸미는 경우가 종종 있음

권고사항

- KOTRA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이용(무료) : 무역관 직원이 현지기업 DB 검증 및 직접 연락을 취해 사기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실제 인보이스가 발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역사기에 대한 검증 가능
- 거래처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 : 거래처에서 갑작스럽게 입금계좌를 변경할 경우 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하거나 공문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발송을 요청하는 등 반드시 검증 진행
- 골든타임 : 무역사기로 입금된 금액이 현지 계좌로 이체되는 데 1~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금 후 거래처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기여부를 알게 됐을 경우 반드시 그 즉시 무역관으로 연락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동결조치 실시

다. 투자진출

헝가리 투자 환경

- 중동부 유럽의 지리적 요충지
 - 주변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2시간 이내에 타 국가로 이동 가능하며, 특히 헝가리 분지 외 지역은 산지라 동-서를 잇는 전통적 길목 역할
 - 서유럽·발칸·CIS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동유럽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시장
-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제도
 - 헝가리는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국가로, 최근 자동차 산업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인센티브 규정 변경 등 적극적인 유치 노력
 - 최근 헝가리 진출기업들의 임금지불 여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고용주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 도입 중

헝가리 투자 환경 분석

강점	약점
(토지) 대부분의 토지가 평지로, 공장 및 빌딩 건설 유리 (기후) 온난한 계절로 인해 공장 가동 등에 영향 없음 (용수) 도나우 강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 풍부 (도로)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럽·발칸·CIS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인력) 기술숙련도가 높은 우수한 인력, 상호존중 문화	(가격) 일반 소비재가 비싼 편, 유럽에서 가장 높은 부가세 27% (인구) 전체 인구 규모가 적은 편이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유틸리티)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세금) 지방세, 부가세 등의 잦은 변화
기회	위기
(경제) 헝가리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 (인프라) EU 기금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 계속 (정책) 헝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	(건설) 건설경기 호황으로 신규 계약 시 시간이 소요 (인력) 실업률 3% 지속으로 인력 부족, 제3국 근로자 활용에 따른 인력관리 비용 발생

헝가리 투자 동향

- 서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지속 증가세
 - (전체 투자) 헝가리 전체 외국인 투자는 지난 4년간 23.48% 증가함
 - (EU 투자) 최근 유럽 경기호조세의 영향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헝가리에 대한 유럽 투자가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전체 평균보다 높은 33.5% 증가

국별 대(對)헝가리 투자액 누계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럽 총계	53,907.10	64,531.40	63,643.50	65,214.70	69,695.60	67,868.60	67,324.70
독일	19,370.90	19,499.90	19,071.40	18,775.70	17,067.60	20,332.70	17,619.10
네덜란드	12,055.80	9,728.20	8,981.10	12,189.80	21,835.00	11,907.10	14,179.70
오스트리아	7,860.80	9,118.30	8,631.10	8,390.20	12,983.90	7,791.40	8,179.60
스위스	1,846.20	2,940.10	2,184.70	1,501.40	371.2	4,939.50	4,555.30
룩셈부르크	4,240.40	10,724.70	10,159.40	9,966.50	-1,613.00	3,215.90	3,382.80
프랑스	2,996.90	3,283.30	2,518.50	2,341.70	905.5	2,666.90	2,825.70
아일랜드	230.5	-994.3	1,201.30	1,060.70	6,248.40	2,948.20	2,616.20
벨기에	2,021.20	2,011.30	1,925.80	1,925.70	1,543.70	2,114.60	1,954.50
영국	1,684.90	2,904.10	3,109.60	3,116.10	3,995.20	3,099.60	1,620.80
미주 총계	6,630.80	8,446.40	9,253.10	9,515.20	-112.9	-716.9	941.5
미국	2,164.10	2,180.40	1,654.70	1,568.90	-1,072.00	-1,512.70	-924.3
캐나다	421.6	458.7	391.3	500.4	545.4	556.4	492.5
아시아 총계	2,008.20	2,193.30	2,385.40	3,084.90	3,319.80	4,021.80	2,158.80
한국	862.7	1,047.10	1,116.40	1,156.00	1,279.20	1,447.30	1,660.10
일본	869.1	772.6	815.9	1,159.70	742.7	838.7	968.5
싱가포르	333.1	406.5	357.4	410.5	456	497.6	459.3
홍콩	329.7	291.9	322.7	408.7	412.8	505.1	268.7
중국	-24.9	65.2	80.3	186.5	176.8	165.8	177.4
아프리카 총계	67.4	254.1	120.9	789.1	1,267.90	1,453.10	1,536.60
오세아니아 총계	29.6	8.7	0.7	-2.5	2.7	-18.8	-54.2
기타	3,366.00	3,458.10	3,466.30	3,292.40	3,441.40	3,398.30	3,573.50
총계	66,009.20	78,891.90	78,869.80	81,941.10	77,677.50	76,202.70	75,644.50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헝가리 국립은행(MNB)

우리기업 및 경쟁국 투자 동향

- 대(對)헝가리 투자의 89.0%가 유럽인 투자
 -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주변국의 누계 투자액이 2017년 기준 673억 유로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89.0%를 차지
 - 비유럽 국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나, 한국은 2016년 비유럽 국가 중 3위 기록 후, 2019년 유럽 및 비유럽 국가 전체 대(對)헝가리 투자 1위국 기록
- 헝가리 정부의 동방정책
 - 헝가리의 유럽 국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나, 헝가리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통한 의존도 완화를 취하겠다는 동방정책을 시행 중임
 - 아시아 주요국의 투자 동향은 아래와 같음

- (중국) Huawei, Lenova 등 IT, 통신을 중심으로 생산거점 확보, 물류센터 신설을 통해 서유럽 판매망 확보에 주력
 - * 주요 진출기업 : Huawei(IT.통신), ZTE, Wanhua(IT.통신), Lenovo(IT), 중국은행(금융)
- (일본) Suzuki 완성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유럽 생산거점 확보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의 투자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 주요 진출기업 : Suzuki(완성차), Denso(부품), Musashi(부품), Bridgestone(타이어)

최근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 제조업 중심 투자진출
 - 2019년 9월 기준, 헝가리 진출 한국기업 수는 서비스업 포함 173개사이며,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 제조법인을 중심으로 대중소 동반진출 사례가 다수임
-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이 새로운 활력
 - 삼성 SDI 및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로 건설·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가 2016년 말부터 2019년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했으며, 협력기업의 동반진출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

투자진출 진입장벽

- 헝가리 실업률 3%대 진입
 - 최근 헝가리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3.9%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7~8%대였던 것을 감안 단시간에 급속히 감소한 것임
 -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들의 신규·증액 투자에 있어 가장 애로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헝가리-독일 상공회의소에서는 젊고, 기술력을 가진 인력의 해외유출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언급
- 헝가리 정부의 잦은 세제개편
 - 헝가리 정부가 최근 친외국 기업적 정책을 계속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의 빠른 세제 개편이 헝가리 투자의 불안 요소의 하나로 꼽힘

투자진출 사례분석 :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 협력사 S사(헝가리 자산 인수형 M&A)

- (계획) S사는 헝가리에 납품처를 두고,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 현지 생산 공급체계를 계획함
- (투자진출 정보 획득) 부다페스트 무역관이 개최한 헝가리 투자진출 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 인센티브, 법인설립 절차, 노무 환경 설명회 및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보 획득
- (M&A 결정) 동유럽 생산 현지화를 결정하고, 투자 부지 검토 및 헝가리 투자청과 협의 사항 조율을 KOTRA에 지원 요청
- (M&A 지원)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매물 6개 시찰을 지원하고, 헝가리 투자청과의 투자 인센티브 상담 동행 지원
- (법인설립 및 M&A 체결) 적합 매물 15개 추가 검토 및 방문 후 법인설립, 해당 매물 자산인수 계약 완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 포인트 : ① 현지 투자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출기업에 가장 알맞은 진출형태 선정에 기여, ② 헝가리 투자청 및 현지 자문 업체를 통한 매물발굴, 계약, 실사 등에 대한 종합 지원

라. 프로젝트

EU 기금

- 2014~2020 EU 기금 사업 활성화
 - 헝가리에 배정된 2014~2020년 EU 기금은 215억 유로이며, 헝가리 정부의 매칭 예산은 38억 유로로 총 253억 유로 규모의 EU 기금 프로젝트가 추진되거나 예정되었으며, 헝가리에 배정된 EU 기금은 전체 3,493억 유로의 약 6.2% 수준으로 전체 EU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임
 - * 동유럽 배정규모 : 폴란드(전체 EU 기금의 22%), 루마니아(6.5%), 체코(6.2%), 헝가리(6.2%), 크로아티아(2.4%), 불가리아(2.2%) 순

기타 프로젝트

- 러시아·중국 등 공동 프로젝트 발주
 - 중동부 유럽의 길목에 놓인 헝가리의 지정학적 위치 활용을 위한 러시아, 중국의 프로젝트 발주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러시아) 러시아는 EU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완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헝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 천연가스 파이프, 지하철 프로젝트 등에 뛰어들어 헝가리 정부를 적극 지원 중이며, 특히 형 오르반 총리와 러 푸틴 대통령은 매년 1~2회씩 정상급 회담을 가지고 있음
 - (중국)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중동부 유럽국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6+1' 그룹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헝가리-세르비아 구간 철도연결을 위한 비용의 70%를 중국이 부담하는 등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프로젝트 실패 사례 : 헝가리전력청(MAVIR) 초고압 케이블 설치 프로젝트

- 참여기업 : G사
- 무역관 지원내역 :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수주지원) 프로젝트 기술제안서(RFQ, Request for Quotation) 헝가리어 작성 지원
- 발 주 처 : 헝가리전력청(MAVIR)
- 참여시기 : 2018년
- 프로젝트 규모 : 2.5만 유로
- 프로젝트 내용 : 헝가리전력청(MAVIR) 초고압 케이블·약세서리 등 납품
- 추진 경과
 - 2018년 초 4개월간 프로젝트 준비, 최종 3개 업체 경쟁했으나, 수주 실패
 - 실패원인 : TED 입찰 정보 입수 후 바로 입찰준비, 현실적으로 준비시간에 애로 ⇒ 프로젝트 발주정보 사전입수를 통한 준비시간 확보가 중요
- 수주의의
 - 유럽 프로젝트 시장에서 입찰 정보 습득 시점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

마. 공공조달

2014~2020 EU 기금 사업의 영향으로 헝가리 공공조달 프로젝트 확대

- 2014~2020 EU 기금 및 세체니 2020 계획에 따라 사회 각 분야 SOC 확충을 위한 공공조달 수요가 발생되며, 주요 타깃 분야는 철도·의료보건 분야

주요 타깃 분야

- (철도인프라) 시장규모 4.2억 유로, 2020년까지 지속 발주 예상
 - 전체 인프라 시장규모인 16.2억 유로의 44.9% 차지,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전체 철도의 40% 이상이 노후화로 신규 프로젝트 발주 계속될 전망
- (의료보건) 2020년까지 약 7.5억 유로 투입, 전체 EU 기금의 약 3% 차지
 - 주요 프로젝트 : 부다페스트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1.1억 유로)
 - * 2020년까지 부다페스트 동서남북 지역에 4개 대형 슈퍼병원 건립
 - 주요 프로젝트 : 헝가리 지방도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1.6억 유로)

4개 주요 도시 병원 신축, 개보수 계획



주 : 4개 도시는 세게드, 페치, 커포슈바르, 니레지하저
 자료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작성

한국기업 진출 유망 공공조달 프로젝트

국가	분야	유망사유(시장 동향 등)	조달기관/ 납품 벤더	URL	조달 세부 품목
헝가리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는 부다페스트시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Healthy Budapest Program(EBP)'을 계획 중임 • 30억 유로 전액 헝 국고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슈퍼병원 3개, 위성병원 21개에 대한 리노베이션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의료장비 공공조달 입찰 예정 	AEEK (헝가리 보건진흥원)	www.aEEK.hu	의료장비
헝가리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 정부는 주요 지방도시 병원 현대화를 위해 1.6억 유로 EU 기금(헝 정부 매칭 비율 23.4%)을 결성 • 주요 4개 지방도시(세게드, 페치, 커포슈바르, 니레지하저)에 병원 현대화 및 신축건립을 진행할 예정임 	지방도시	-	의료장비

자료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작성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중동부 유럽 주요 협력국

- 2018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26.64억 불(대(對)헝가리 수출 19.67, 대(對)헝가리 수입 6.94)로 헝가리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중동부 유럽의 3대 주력 수출 시장
* 교역규모(억 불) : 20(2014) → 16(2015) → 16(2016) → 19.7(2017) → 26.6(2018)
- 헝가리 진출 한국 대기업의 부품 소싱으로 대(對)헝가리 교역은 매년 높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협력기업의 헝가리 투자진출, 글로벌 소싱 체계 개편으로 무역수지 일부 감소세
* 무역수지(억 불) : 10(2014) → 3(2015) → 3(2016) → 5(2017) → 12.7(2018)

한국의 대(對)헝가리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출	금액	1,481	1016	953	1,206	1,967
	증가율	△29.9	△36.8	△6.3	26.5	63.1
수 입	금액	515	735	651	706	694
	증가율	10.3	12.3	△11.5	8.4	△1.7
무역수지		966	281	302	500	1,273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對)헝가리 주요 수출품 : 의약품, 평판디스플레이, 축전지, 기타 기계류, 합성수지, 기타 정밀화학 원료, 승용차, 운반하역기계 기타 전자응용기기 등
- 한국의 대(對)헝가리 주요 수입품 : 자동차 부품, 원동기, 전원장치, 자동제어기, 기타 타일 및 도자기 제품, 무선통신기 부품,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계측기, 전동기, 펌프

한국의 대(對)헝가리 주요 품목별 교역 현황(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의약품	232	10.5	자동차 부품	76	△3.1
2	평판디스플레이	140	73.7	원동기	45	△64.6
3	축전지	80	361.9	전원장치	14	130.0
4	기타 기계류	176	205.8	자동제어기	27	22.5
5	합성수지	147	46.2	기타 타일 및 도자기 제품	17	△10.4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한국의 대(對)헝가리 투자 동향

- 2018년 누계 기준(신고) 우리기업의 대(對)헝가리 투자는 약 9.9억 달러이며, 투자 분야는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건설, 도소매업 순으로 구성
 - 2019년 8월 기준 제조업 중심으로 헝가리 진출 우리기업 수는 168개

한·헝가리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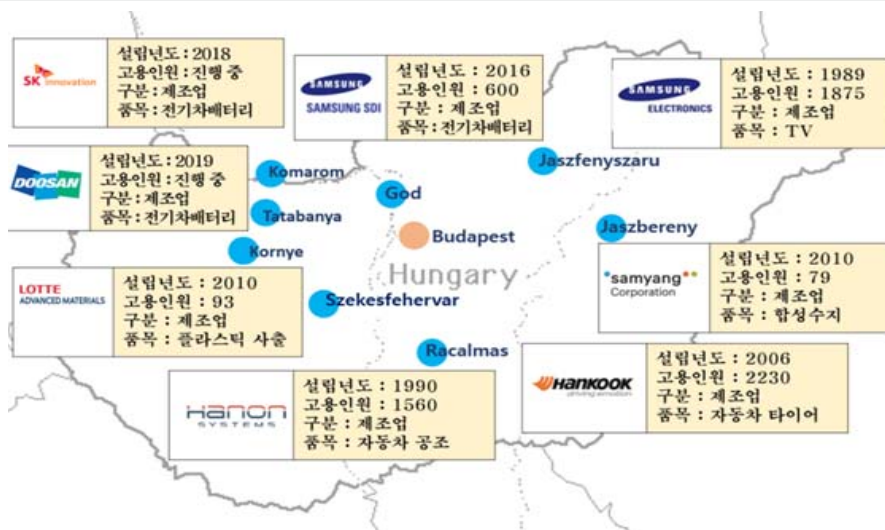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계
대(對)헝가리 투자	금액	8.9	0.2	39.4	13.4	393.0	985.4
	건수	11	4	9	23	48	287
대한(對韓) 투자	금액	-	-	-	-	-	201
	건수	-	-	-	-	-	31

주 : 한국 통계자료와 헝가리 통계자료 상이하며, 통계해석 시 유의. 2007년 이전 투자액 합산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한국수출입은행

-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대(對)헝가리 진출이 활발하며, 생산법인 형태로 진출한 기업 중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순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각 협력기업 진출도 다수
 - 2016년 8월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그린 필드 투자 및 VC 기업들의 잇따른 진출 수요로 대(對)헝가리 투자건수는 당분간 지속 확대 전망
 - 제조업 비중이 전체 투자금액의 65%, KDB 유럽 등 금융업이 25% 차지
 - 2018년 3월 SK이노베이션, 2019년 7월 두산전자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기공식 개최

헝가리 우리기업 진출 지도



자료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작성

헝가리 투자진출을 위한 경쟁력 비교 자료

지표(순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한국	발표기관	발표년도
Ease of Doing Business Rank	53	33	35	42	52	5	World Bank	2018년
Starting a Business	82	121	115	127	111	11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10	40	156	143	146	10		
Getting Electricity	122	58	10	47	154	2		
Registering Property	30	41	33	9	44	40		
Getting Credit	32	32	44	44	22	60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10	57	72	95	64	23		
Paying Taxes	86	69	45	48	49	24		
Trading across Borders	1	1	1	1	1	33		
Enforcing Contracts	22	53	99	47	17	2		
Resolving Insolvency	65	25	15	42	52	11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8	37	29	41	52	15	WEF	2018년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46	60	59	50	47	57	TI	2018년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47	34	28	55	49	27	IMD	2018년
Time spent dealing with the requirements of government regulations (%ofseniorManagementtime)	11.3	19.7	13.9	8.2	15.8	None	World Bank	2013년
Total tax rate (% of commercial profits)	40.3	40.7	46.1	51.6	40	33.1	World Bank	2018년
Time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days)	7	37	25	27	35	4	World Bank	2018년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WEF),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한국기업의 투자 성공·실패 사례

구분	내용	시사점
삼성전자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년 헝가리 경제개방과 동시에 영국 원아드에 소재했던 중대형 컬러TV 생산시설 이전 2007년, 2014년 2·3차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으며, 삼성전기, 삼성케미컬, 삼성SDS 등 계열사들의 헝가리 진출을 이끌기도 함 헝가리의 저렴한 인건비 대비 우수한 노동 인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유럽 시장 공략을 진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제조시설 설치·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유럽 내 입지 강화 헝가리인들이 꿈꾸는 일하고 싶은 기업 순위 10위 안에 들며, 헝가리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음
현대일렉트릭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으로 중전기 강국인 헝가리에 중전기 R&D 센터를 운영 중임 독일 지멘스, ABB 등에서 퇴직한 헝가리 인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R&D 성과를 창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헝가리의 우수한 기초과학 및 엔지니어 인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음

자료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작성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한-헝 외교관계 현황

- 1988년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에 대한 협정으로 동유럽 최초로 한국과 수교, 정치·경제협력 관계 구축
 - 한국 정상 헝가리 방문 2회(1989년 노태우 대통령, 2001년 김대중 대통령)
 - 헝가리 정상 한국 방문 7회(1989년 줄러호른 총리, 1990·1993년 아르파드 대통령, 2009년 라즐로 대통령, 2012년 팔슈미트 대통령, 2014년 빅토르 총리, 2015년 야노쉬 대통령)
- 한국-헝가리 체결 주요 협정
 - (1988년 8월)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 - 동유럽 최초
 - (1988년 12월) 투자보장 협정
 - (1989년 2월)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 - 2004년 EU 가입에 따라 종료
 - (1989년 2월) 문화 협정, (1989년 3월) 과학기술협력 협정
 - (1995년 3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협정
 - 2005년 EU 가입에 대한 신규협정 체결
 -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 2019년 2월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

- 2014년 제1차 경제공동위
 - 중소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원자력 인력양성, 기술혁신 협력, ECA 간 업무 약정
 - 한국 전자 무역 시스템 수출, 한-헝 방위 산업 분야 협력 등 논의
- 2016년 제2차 경제공동위
 - 헬기 수출, 헝가리 건설 프로젝트 진출, 전자 무역 시스템 수출방안 등 검토
 -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중소기업 협력, 방위 산업 및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Ⅲ. 진출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헝가리 시장 SWOT 분석>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6F2FF;"> <p>S</p> <p>강점 (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EU 가입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 도입,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 동유럽, 발칸, CIS의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주변 동유럽국에 대한 영향력 • 비셰그라드(V4) 간 경제협력 강화, 공통의 목소리 • 우수한 인적자원(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 2위)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80800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6E680;"> <p>W</p> <p>약점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약 970만 소규모 시장,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 • 유럽 평균 이하 소득, 가격에 매우 민감한 소비심리 • 투자·수출 모두 서유럽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 자체적인 중장기 성장 동력 부족 • 부실한 국가 재정, 잦은 국제사회에서의 갈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6F2FF;"> <p>O</p> <p>기회 (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임금 인상, 고용률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 기대 • 3대 국제신용평가사, 헝가리 신뢰 등급 상향조정 • 교통인프라 확충 기대 • 헝 정부의 서유럽 경제의존도 완화 노력, 아시아 국가와 협력 강조(동방정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80000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68080;"> <p>T</p> <p>위험 (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정책 변화 및 세계개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로서 불안요소 • 난민 문제 등 EU와의 잦은 정책 갈등 • 현지 인력부족 문제 심화 • 러시아, 중국 중심의 양자 프로젝트 선호도 및 헝 정부의 투명성 </div>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테스트베드로 활용, 동유럽 주변국 시장 확대 • 경기회복세 뚜렷, 가계소득 증가로 경기호조 	<p>헝 시장 집중공략, 주변 동유럽 시장 확대</p>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V4 등으로 권역 내 교역·진출 활성화 수요 기대 • 헝 총선 후 정책, 규제 변화 움직임 적극 활용 	<p>헝가리를 플랫폼으로 활용, 유럽 투자진출</p>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강화 수요를 주목, 적극 대응 •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수주 참여기회 발굴 	<p>아시아 국가로서 프로젝트 협력수요 발굴</p>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소득 증가 등 갑작스러운 시장변화에 따른 기회 발굴 	<p>의료·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추진</p>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수출) 신시장 기회 적극 발굴

유로존 경기회복, 환율 약세에 힘입어 경기호황, 형 소비패턴 빠르게 재편 중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경제성장, 실질임금 상승으로 이국적인 제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욕구 증가
 - * 2020년 경제성장률 2~3%대 전망, 최저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프리미엄 제품 시장 확대 중
- 헝가리인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켓 등 시장질서 재편
- EU 시장 단일화, 소비자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헝가리 디스트리뷰터 취급 제품 포트폴리오 확충 진행 중
 - * 작은 시장규모 상 디스트리뷰터는 한정, 취급 품목 다변화 및 우수 제품 취급에 관심 증가
- V4 일원이자 중동부 유럽 중심 국가, 주변 동유럽·발칸·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 상당
 - * 인구 968만의 소규모 시장이지만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 시장 확장 가능성 대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헝가리 시장 분위기 ‘긍정적’, 2017년, 2018년 4%대의 경제성장률 지속되며, 2019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나, 여전히 2~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유럽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현지 임금 가파른 성장으로 헝가리 국민의 소비여건 향상
-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로 2019년 물가 상승률 3%대 진입 예상되며, ‘이국적인 제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했으며, 아직 유럽 평균보다 낮은 한국산·비유럽산 제품 진출
- 온라인 구매에 대한 소비패턴 변화, 이색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욕구 증가로 시장질서 새롭게 재편, 현지에서 팔리는 품목 다변화
 - 전통적인 헝가리인들은 제품을 직접 보고, 비교하고, 구매하는 등 제품 구매에 매우 신중하고, 꺼리는 편으로 카드사용 증가와 온라인 마켓 증가가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질 전망
- 주변 동유럽·발칸보다 나은 소비 환경, 상당수 주변국 인구가 헝가리를 방문 관광·쇼핑, 헝가리 레퍼런스가 헝가리 동남부 인근 국가에서 유효
 - 헝가리 관광 산업 호황 계속, 루마니아·세르비아·크로아티아 등 주변국 헝가리 디아스포라 상당수 거주

진출전략(소비재) : 가능성, 이색적인 맛과 향, 디자인 등 경쟁요소 필수

- (현황)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산 저가 제품에 오랜 기간 노출, 제품 가격 대비 성능에 매우 민감한 소비 특성
- (진출방향)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기능이 첨가된 제품이나,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으로 헝가리 진출 노력 필요하며, 식품 종류의 경우, 새로운 맛과 향을 매우 반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지인에게 낯설지만 호감을 주는 제품 런칭

- (진출전략)
 - ① (시장 반응) 샘플링을 통한 제품 호감도 조사, 현지인을 활용한 온라인·SNS 제품 리뷰를 활용하여 현지 시장 연락처를 위한 마케팅 전략 필요
 - ② (파트너 발굴) 소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이 큰 현지 파트너 발굴은 필수이며, 디스트리뷰터들끼리 정보가 활발히 돌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조건 제시 등 신뢰 관계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③ (마케팅) 초기 마케팅 단계에서는 헝가리 디스트리뷰터 역시 리스크를 안고, 마케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은 수량(MOQ)에도 적극 대응하고, 샘플링을 지원하는 등 마케팅 후방지원 필요
- (유망품목) 화장품·식음료·의료기기 등 유망

주요 유망품목

품목	세부내용
① 화장품	헝 스킨케어 시장이 2018년 전년 대비 7.6% 성장을 기록, 특히 마스크 팩은 40.3%의 성장을 보이며, 대폭 성장했으며, 마스크 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관심 증가
② 음료	지난 5년간 시장규모 44.1% 상승(주스 52.5%, 탄산 18.3% 상승), '건강·저설탕·새로운 향'에 대한 선호도 높으며, 알로에 음료, 밀키스 등 헝가리에 진출 추진 * 헝가리는 2012년부터 비만세 도입, 100mm당 8g 이상 설탕 함유 시 비례세 부과
③ 식품	부다페스트 무역관 주관 한국식품 시식회(2016년 12월) 결과, 헝가리 식품바이어 상당수가 매운 맛, 한국 전통적인 향과 맛에 호감을 표했으며,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았으며, 유기농, 이국적인 맛을 가진 제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 증가
④ 의료기기	2016~2018년 헝가리 치과 산업에 대한 마케팅 사업 추진 결과, 헝가리 디스트리뷰터·치과 Key Doctor들은 한국산 제품의 유럽 시장 경쟁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며, 특히 덴탈체어, 초음파기기, 기계요법치료기, 임플란트, 외과용캐터트 등이 기능성과 가격 면에서 유망품목으로 조사됨
⑤ 공기 청정기	헝가리 가정에서 공기 청정기는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나, 점차 중저가 제품들이 많이 유입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확장되는 단계에서는 성숙도가 높은 시장보다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제품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진출전략(산업재) : 정부 시장정책 방향과 상당히 연계, 정부 정책 주목

- (현황) 산업재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에 호응하여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헝가리 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에 주목하여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 할 필요
- (정부 정책) : 각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정부 단위에서 계획

헝가리 산업별 정부 정책

품목	세부내용
① 건설	주택 신규건축·개보수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정책(CSOK)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2016년부터 신규 건설 주택에 대한 세금을 5%로 인하하여 2019년까지 유지, 2020년부터 본 정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꺾게 되는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대안으로 마련할 정책 내용을 모니터링 할 필요
② 농업	헝가리 정부는 중단되었던 농업용 트랙터의 헝가리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2017년부터 재개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헝가리 농기계산업협회는 트랙터 등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관련 산업의 현지 진출 및 중간재 수입 등에 관심 증대
③ 에너지	전체 에너지 믹스 중 태양광은 0.1%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헝가리 정부는 발전차액제를 통한 차액보상제도,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건물에 설치 시 저금리 대출 및 20년 구매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활성화 지원
④ 의료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부다페스트 슈퍼병원 개설 및 주요 지방도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EU 기금을 마중물 삼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병원 현대화를 위한 의료기기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관심 증가
⑤ 방산	헝가리는 V4, NATO, EU의 회원국으로 관련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아울러, NATO 회원국 권장사항(국방비가 GDP의 2%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헝가리 방위 및 군사개발 프로그램(이하 Zrinyi 2026)을 가동 중이며, 이를 통해 군대의 무기, 장비, 전자 장치 및 제복 등을 근대화할 계획임

○ (진출전략)

- ① (모니터링) 헝가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업 확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헝 정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기회 발굴 필요
- ② (네트워크) 산업 확장에 따른 시장기회 선점을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 관련 협회 및 산업별 클러스터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인 제품 수요 파악 필요
- ③ (마케팅) 산업재에 대한 현지 마케팅 및 신뢰할 만한 파트너 발굴을 위해서는 KOTRA를 통해 해외시장조사, 지사화, 사절단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기회 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유망품목)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농업·에너지·의료 관련 품목 및 EU 기금 사업과 연계된 품목

헝가리 주요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명	주요 내용
자동차	North Hungarian Automotive Clu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기업 : 77개사 - 대표기업 : Robert Bosch, Modine - 주요 특징 : 헝가리 북부 자동차 산업 리딩 클러스터 - 고용인원 : 1.2만 명 - 연매출 : 1.4억 유로 - 연수출 : 1.1억 유로
기계	Bakony-Balaton Mechatronics and Automotive Industry Clu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기업 : 39개사 - 대표기업 : Continental Automotive, Le Bélier - 주요 특징 : 기계·자동차 산업 중심의 R&D 클러스터
의약품	Pharmapol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기업 : 24개사 - 대표기업 : Richter, MEDISO - 주요 활동 : 수출 중심의 의약품 클러스터

	Albert Szent-Györgyi Life Sciences Cluster	- 소재기업 : 17개사 - 대표기업 : Richter - 주요 활동 : 제약·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R&D 클러스터
ICT	Innoskart ICT Cluster	- 소재기업 : 63개사 - 대표기업 : Ivanics, Magyarmet - 주요 활동 :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력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Mobility and Multimedia Cluster	- 소재기업 : 26개사 - 대표기업 : Videoton Holding, Goodwill Pharma - 주요 활동 : 이동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의 중동부 유럽 중심 클러스터
에너지	EcoPolis Cluster	- 소재기업 : 40개사 - 대표기업 : MOL, Graboplast - 주요 활동 :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주력

자료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조사

헝가리 주요 협회

구분	협회 명	웹 사이트
건설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ior Designers	http://lakberendezok.hu/
	Hungarian Association of Building Engineers	http://www.megsz.hu/megsz/
	Building Science Association	https://eptud.org/
	Hungarian Tunnelling Association	http://www.ita-hun.hu
	Hungarian Ceramic Alliance	http://www.keramiaszovetseg.hu/
	Hungarian Brick Association	www.teglasszovetseg.hu
	Hungarian Roof Merchants Association	http://tetokereskedok.hu
	Hungarian Steel Association	http://www.magesz.hu
	National Carpenter and Woodworking Industry Association	http://www.oafsz.hu/contact
	Hungarian Lightweight Construction Association	http://konnyuszerk.hu/
Aluminum Window and Facade Association	http://www.aluta.hu/	
농업	Hungarian Grain Processors, Forage Manufacturers and Merchants Association	http://www.gabonaszovetseg.hu/
	Hungari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http://hucpa.hu/
에너지	Gas Industrials National Association	http://www.goe.org.hu/
	Hungarian Geothermal Association	www.mgte.hu
	Hungarian Solar Panel Solar Collector Association	http://www.mnnsz.hu/
의료	Hungarian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Wholesalers	https://www.php-gynsz.hu/
	Association of Dental Merchants and Manufacturers	http://fokesz.hu/
자동차	Hungarian Medical Devices and Diagnostic Distributor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http://momdif.hu
	Hungarian Automitove Industry Association	http://gepjarmuipar.hu/mage-tagvallalatoknak/
	Association of Hungarian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http://www.majosz.hu/3/
	Hungarian Association of Automotive Dealers	http://www.gemosz.hu

자료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조사

📌 성공 사례

수출 성공 사례 : 소비재(화장품)

- (현황) 헝가리 현지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우수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성공 사례)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현지 유력 온·오프라인 디스트리뷰터를 발굴, 국내 및 유럽 현지 KOTRA 행사 참여를 통해 한국기업과 만남을 지원, 2016년 해외수출이 전무한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 2개사의 2017년 헝가리 수출 지원
- (유의 사항) 유럽 내 화장품 유통을 위해서는 책임회사 지정 및 CPNP 등록이 필요하며, 현지에서 이를 지원해줄 파트너 발굴이 선행되어야 함

수출 성공 사례 : 산업재(태양광패널)

- (현황) 헝가리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4.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 특히 헝가리에서 비율이 저조한 태양광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중
- (성공 사례)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2015년부터 꾸준히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심을 가진 현지 디스트리뷰터 발굴 및 GGHK 등 국내 상담회에 구매단으로 파견해왔으며, 이에 연결된 한국 태양광 패널 2개사에서 각각 6만 달러, 1만 달러의 패널이 헝가리로 소싱되었으며, 헝가리 정부의 지방도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납품됨
- (유의 사항)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유럽 반덤핑 제재조치가 매년 연장 중이나, 제재해제 시에 중국산 제품과의 시장경쟁이 예상됨

2-2. (투자) 동유럽의 공장 헝가리를 통한 유럽 시장 진출

외국인 신규·증액 투자에 따라 대중소 동반진출, 원가절감을 위한 현지 소싱 수요 증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동반성장) 한국 투자진출 기업의 신규·증액 투자 결정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증가
 - * 두산전자·SK이노베이션의 신규투자 및 삼성 SDI·한국타이어·롯데첨단복합소재·한온시스템즈 증액 투자 등
- (현지화) 현지 제조시설 설립을 통한 현지 생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기업 소싱수요 대응
 - * 다임러·아우디 등 현지 증액 투자 결정, 원가절감을 위해 현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 소싱 관심
- (M&A) 동유럽 자산(공장) 인수형 M&A를 통한 현지 생산인증 취득 및 건축 기간 단축으로 경쟁력 확보
 -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지원 성약 사례 : 2017년 2건(Y사, S사) - 현지 공장인수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헝가리는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수출형 경제구조임
 - 1989년 경제개방 당시 민간에 축적된 자본이 없어, 저렴한 인건비 대비 우수한 기술력 및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서유럽 등 외국인 자본에 의존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해왔음

- 자동차, 전기전자, 제약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특히 2004년 EU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 계속 성장
- **한국이 2019년 대(對)헝가리 투자 1위국 차지(형 국립은행)**
 - 한국의 대(對)헝가리 투자는 2016년 미국·일본과 더불어 비유럽권 국가 중 헝가리 투자 Big 3를 기록하다가, 2019년 대(對)헝가리 투자 1위국으로 등극
 - 대표 진출기업인 삼성전자, 한국타이어는 각각 세 차례 제조시설 증액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에 따른 대중소 동반진출 수요가 많았음
 -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시설 건축을 위한 신규 투자를 했으며, 롯데 첨단복합소재, 한온시스템즈 등이 증액 투자를 추진 중
- **글로벌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납품처 발굴의 기회로**
 - 최근 다임러 벤츠, 아우디 등 헝가리에 생산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들 역시 헝가리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증액 투자를 진행 중이며, 신규 생산모델에 차용될 차량용 부품 소싱처 다변화에 관심이 많음
 -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가절감(Cost Down)이 주목적이며, 이에 따라 인근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에서의 소싱에 적극 관심이 많은 분위기이며, 이는 동유럽 진출 생산기업의 공통적인 분위기로 보임

 **진출전략 및 유의 사항**

- **대중소 동반진출을 활용, 투자진출 리스크 완화**
 - 헝가리 및 인근 동유럽 국가 발주처에서 현지 신규 공급처를 찾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포착되나, 투자진출에 대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헝가리 신규·증액 투자 대기업의 수요를 앵커삼아 진출 리스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
 - 다임러 벤츠, 포드, 일렉트로룩스 등에서 신규 납품처 발굴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헝가리 투자 진출 유망분야는 자동차·전기전자 등 분야임

헝가리 투자 유망분야

유망분야	현황 및 기회 요인
자동차 부품	▶ 헝가리 내 완성차 메이커(벤츠, 아우디, 스즈키, 오펜) 및 인근국 우리 진출기업(현대차, 기아차)에 납품 기회
의료·제약	▶ 저임금의 고급인력 활용 가능, 100년 이상 제약 산업 역사 등 ▶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현지 Egis를 통해 유럽·CIS 등 성공적 진출
전기전자/ IT	▶ 전기전자 생산은 헝가리 제조업 총생산의 22% 차지(삼성, GE, SIEMENS, IBM 기 진출)
R&D 센터	▶ 의약, ICT, 기계 등 분야의 글로벌 기업 R&D 센터 운영 중 ▶ 우리기업의 순수 R&D 센터 진출은 현대중공업이 유일

○ KOTRA 자산 인수형 M&A 사업을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

- 최근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현지 자산(공장) 인수형 M&A 2건 성약
- 『M&A 의향 발굴 → 매물 검토 → 매물 실사 지원(M&A 지원센터) → 계약검토 → 비용 지원』
순단계를 지원했으며, 2개 성약기업에서는 헝가리 납품처 확보 및 현지 생산라인 완비를 위한
시간 단축, 현지 인허가 간소화 등에 성공
- ISO·TS 등 현지 안전기준 등을 갖춘 매물 인수로 인증취득 등을 위한 시간·비용 감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

○ 헝가리 투자청, Korean Desk 적극 활용

- 부다페스트 무역관은 헝가리투자청(HIPA)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 중
- 헝가리 신규·증액 투자를 위한 각종 인콰이어리 해소, 투자 인센티브 협상 등이나 기 투자진출
기업의 경우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어려움을 투자청 내 창구를 활용하여 적극 의견 개진 가능

○ 헝가리 인력 부족 현상은 사전에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

- 헝가리 실업률은 현재 3%대를 유지하며, 매우 낮은 편이나, 지역별로 실업률 편차가 있음
- 헝가리에 진출하여 대규모 인력 고용 계획이 있는 경우,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입지를 고려하거나, 제3국(우크라이나, 몽골 등) 인력 고용을 염두 해야 함

3 한-헝가리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프로젝트)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 진출 적기

2014~2020 EU 기금 프로젝트로 사회 전반에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발주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EU 기금) 2014~2020 EU 기금 프로젝트 본격 발주, ICT·의료·교통·에너지 등 프로젝트 발주
 - * 전체 EU 기금의 6.1%가 헝가리 배정, 경제개발(30.8%)·지역개발(13.6%)·교통(13.3%)·환경에너지(12.9%) 순 배정
- (에너지) EU 2020 목표 달성을 위해, 헝가리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
 - * 신재생에너지원 비율 14.65% 달성목표, 0.1% 수준의 태양광 정책적 지원 집중
- (한국기업)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계속,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레퍼런스 확보
 - * 삼성 SDI,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우리 대기업들의 동유럽 건축 프로젝트 수요 계속 발생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4~2020 EU 기금 프로젝트
 - 헝가리로 배정된 2014~2020 EU 기금은 215억 유로로 전체 EU 기금의 6.1% 수준이며, 헝가리 정부의 매칭 예산을 포함하여 총 253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
 - 헝가리 EU 기금은 경제개발(30.8%), 지역개발(13.6%), 교통(13.3%), 환경·에너지(12.9%) 등 사회 곳곳에서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 EU 기금을 활용한 헝가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은 '세체니 2020' 계획으로 9개 분야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Operational Program, OP)을 보유

2014~2020년 OP별 배정예산

(단위 : 백만 유로, %)

분류	총예산	EU 기금	헝가리 국고	EU 기금 배정비율
환경·에너지	3,784	3,216	568	14.9
경제개발	8,813	7,733	1,080	35.9
인력개발	3,069	2,615	454	12.1
교통개발	3,919	3,331	588	15.5
공공행정	935	794	141	3.7
지역개발	3,970	3,389	581	15.7
경쟁력개선	927	463	464	2.2
총합	25,417	21,541	3,876	100.0

자료 : (2019년 9월 기준 최신) 세체니 2020 홈페이지

○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 Europe 2020 목표 달성을 위해 헝가리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4.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나, 수력원이 없는 헝가리에서는 풍력·태양광 등의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임
- 태양광의 경우, 슬로바키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주변국보다 매우 낮은 0.1%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헝가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중
- 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발전차액제도, ②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0.5~1.0MW)에 대한 은행 최저금리 대출, ③ 형 전력사를 통해 최대 20년까지 고정금액에 전력 구입계약 등의 활성화 정책으로 지원 중

○ 우리기업들의 동유럽 투자진출 계속

- 최근 국내 배터리 3사의 동유럽 투자진출 계속 『삼성 SDI-헝가리, LG화학-폴란드, SK이노베이션-헝가리』를 비롯한 한국타이어 증액(헝가리), 넥센타이어(체코) 등 대기업 투자가 계속됨
- 이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설계·엔지니어링·감리·배전·라인설치 등), 시스템 구축(보안, ICT, 자동화 등)에 대한 발주,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현지에서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레퍼런스 확보 노력 필요

 **진출전략**

○ 동유럽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성

- 한국 건설·엔지니어링 등 민간 개발사 및 공공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프로젝트 정보 수집, 교류를 통해 입찰참여 기회 확대
- 수주 유망분야 선정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 지속 업데이트

수주 유망 중점 추진 분야

유망분야	현황 및 기획 요인
환경/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2020 지침에 따라 환경관련 투자 본격화 - 플랜트 설치, 기술·솔루션 제공형태로 참여 가능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2020년 EU 기금 전체 배정 액의 15.5%를 차지하는 분야 ▶ 장기적으로 헝가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 도로건설·보수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 정보 시스템(교통카드 시스템)·도로안전시설물, 지하철 사업 등 유망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건 개혁은 2016년 헝가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분야 ▶ 슈퍼병원, 지방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등으로 의료기기 교체 수요 기대

○ 헝가리 태양광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 헝가리 정부의 전략적 정책 지원에 힘입어, 태양광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고, 유럽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 적시

- 헝가리 정부조달 참여 디스트리뷰터들에 따르면, 시장진입 초기 단계에서 가격적 메리트를 제공하여 제품 레퍼런스를 확보한 후,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언급되며, 또한 유럽 내 물류센터를 활용하거나 헝가리의 낮은 최소주문수량(MOQ)에도 적극 대응 필요

○ 한국 진출기업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활용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미 중동·중국 등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 현지 레퍼런스, 네트워크,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가장 큰 걸림돌임
- 우리 진출기업은 제조시설 건립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내 프로젝트 시장 진출에 적극 진출노력이 필요

3-2. (R&D) 형 R&D 역량 및 동유럽 네트워크 활용, 새로운 성장 가능성 발굴

헝가리의 우수한 기술력, R&D 역량, 마케팅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의료) 저비용 고급 연구진을 활용, 논문 및 임상 등 유럽산 레퍼런스 확보
 - * 헝가리는 전통적인 유럽 내 의료 분야 강국, 임상의 경우 한국보다 약 1/6 비용에 추진 가능
- (R&D) 엔지니어링·ICT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기초·응용 분야 모두 고부가가치 창출
 - * 글로벌 기업 상당수 헝가리 우수인력 활용 R&D 센터 운영, 동유럽 ICT 스타트업 강국
- (JV) 형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주변 동유럽, 발칸, CIS 판매 네트워크 확보 가능
 - * 성공 사례 : 셀트리온 헬스케어, 형 Egis를 통한 현지 인증 및 마케팅 채널 확보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헝 공공 분야 및 민간 분야 공동연구 계속

- 헝가리의 우수한 기초과학 역량 활용을 위해, 한-헝 간 공공·민간 분야의 공동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헝가리의 우수한 역량을 민간 분야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

공공부문 - R&D 협력

- 2009년 이후 '한-헝가리 공동연구실 사업' 진행 중(4개 프로젝트)
 - 2009년 12월 : 한-헝가리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실 개소 합의
 - 4개의 한국-헝가리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민간부문 - R&D 협력

- LG화학, 헝가리와 2개 협력 프로젝트 진행
 - 헝가리 과학원 및 부다페스트 공대와 협조, 배터리 소재 특허출원
 - 3D head display 기술 상용화 추진(2014년 1차 연구, 이후 3개년 과제 진행)
- 한국 중소기업 2개사, 한-유럽 공동연구를 위한 치과 분야 신기술 연구 프로젝트 추진

- **헝가리 의료 분야 역량 활용을 통한 유럽산 레퍼런스 확보**
 - 헝가리 의대·치대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노벨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R&D 비용이 저렴한 편임
 - 임상실험 역시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편이고, 저렴한 것이 장점이며, 실제 임상을 추진한 한국기업에 따르면 국내의 약 1/6 비용임
 - 헝가리 공동협력을 통한 한국 신기술에 대한 유럽산 논문 레퍼런스 및 임상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 **엔지니어링·ICT에서도 높은 창의적 역량 보유**
 - 헝가리는 물리·화학 분야에서 다수 노벨상을 받은 기초과학 강국이며, 전통적인 중전기기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특히, 독일 등 글로벌 기업의 퇴직 인력 등 관련 분야 시니어급 전문인력 활용 기회 상존
 - Prezi, LogMeIn, Ustream 등 글로벌 스타트업의 고향이며, 우수한 ICT 인력 확보가 가능한 동유럽 스타트업 수도
- **동·서유럽·발칸·CIS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마케팅 네트워크**
 -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헝가리 Egis와의 협력을 통해, 까다로운 유럽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현지인증 취득
 - Egis의 기존 구축된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 동서 유럽, 발칸반도, CIS 지역으로 판매를 늘려 가고 있으며, 2017년 헝가리는 한국 제약수출 2위 대상국으로 성장, 2018년에는 5위 대상국을 기록하였고, 수출 규모는 매년 지속 증가 중
 - * 한국의 대(對)헝가리 제약수출 규모(백만 유로, Global Trade Atlas HS 30 기준) :
(2014) 6.8 → (2015) 155.8 → (2016) 121.0 → (2017) 186.5 → (2018) 197.2

진출전략

- **헝가리의 우수인력 및 기존 연구성과 전략적 홍보**
 - 우리나라 기업 산하 사설 R&D 센터 대상, 헝가리가 가진 저비용 고급 R&D 인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 활용의 장점 및 성과 홍보
 - * 중소기업 활용 사례 : 치과용 재료 제조 벤처기업 M사 사례
 - 2014년 3월 치과재료용 신소재의 임상 연구를 헝가리 대학으로 의뢰
 -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1억 원의 연구개발비 지원
- **헝가리의 R&D 인력을 활용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지원**
 -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헝가리 과학기술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 가능 연구진 확보
 - 기술개발협력 상담회를 통해 상호 간 협력방안 모색

과학기술 협력 유망분야

유망분야	현황 및 기회요인
공학 전반	부다페스트 공대 연구소 등 유수의 연구진과 R&D 가능성
의료·바이오	세멜바이즈 의대, 세계드 의대 등 명문 의대를 활용한 임상사례 발굴 가능
기계·전기전자	서유럽 글로벌 기업(Siemens, Bosch 등) 퇴직 인력 및 엔지니어들을 활용한 기계 및 전기전자 분야 기술 상용화 R&D 추진사례 확대 발굴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매칭 후 현지 R&D 투자진출 시 법인설립 지원까지 지원**
 - 최근 헝가리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R&D 투자 시 인센티브 지원범위가 넓어지는바, 헝가리투자청(HIPA 등)과 긴밀한 공동 지원 및 투자진출 단계별 지원
- **헝가리의 지역적 이점과 판촉 네트워크 적극 활용**
 - 중동부 유럽 권역 내 헝가리기업들이 발굴한 판매망을 적극 활용, 우수한 국내 신제품에 대한 주변국 수출의 장으로 활용

4 진출 시 유의사항

낮은 MOQ	잡은 세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헝가리 바이어들은 매우 낮은 MOQ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바이어들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거래 초기에 매우 낮은 MOQ를 제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 ▪ (대응전략)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바이어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거래 시작 단계에서 MOQ를 맞춰 주는 것이 장기적인 거래로 이어지는 물꼬가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예상이 어려운 잡은 세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 정부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9%)를 슬로건으로 헝가리 세제에 대해서 홍보하나, 자세히 보면 지방세, 근로자의 복리후생 지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세제 변화가 매년 발생 ▪ (대응전략) 매년 달라지는 세제 확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로펌 및 컨설팅 회사를 통한 정보 지속 필요, 과거 자료는 최신 적용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필요
무역 사기건 증가	노동력 부족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기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선의 이메일 해킹을 통해 변경된 계좌번호를 안내하여 송금 유도 ▪ (대응전략) 송금 전 담당자와 유선 통화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번호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경우, 송금 전 반드시 이메일뿐만 아니라, 담당자와 유선 통화 등으로 재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헝가리 실업률 3%로 완전 고용상황, 노동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 제3국 인력 확보를 추진 중이나 이도 안정적이지 않음 ▪ (대응전략) 지역별 편차가 있는 실업률을 확인하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진출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는 지역별 실업률 편차가 꽤 큰 편으로,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은 실업률이 높고, 헝 정부의 투자인센티브도 높게 설정된 점을 고려해야 함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901812	수입관세율(%)	0.0%
초음파기기	수입액('18/US\$백만)	12.3	대한수입액('18/US\$백만)	2.1
	선정사유	한국에서의 수입이 최근 2년간 152% 증가		
	시장동향	최근 2년간 수입 규모 50.5% 증가		
	경쟁동향	독일(2018년 시장점유율 24.3%), 네덜란드(22.9%), 한국(17.3), 중국(15.6%) 미국(5.54%) 순		
	진출방안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우수한 품질의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강조, IT 결합형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체험기회 제공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2	HS Code	842121	수입관세율(%)	0.0%
연수기, 정수기, 이온수기	수입액('18/US\$백만)	35.5	대한수입액('18/US\$백만)	0.2
	선정사유	수처리 장치 시장은 매년 두 자릿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헝가리 자국 제품 보다는 수입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시장동향	건강한 물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헝가리 수도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등이 주요 경쟁국임		
	진출방안	시장 가격을 적절하게 선정 및 기술 및 내구성 홍보 필요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3	HS Code	902121	수입관세율(%)	0.0%
임플란트	수입액('18/US\$백만)	1.4	대한수입액('18/US\$백만)	0.03
	선정사유	한국산에 대한 바이어들의 선호도 체감		
	시장동향	최근 2년간 수입 규모 78.8% 증가		
	경쟁동향	일본(2018년 시장점유율 33.9%), 이스라엘(26.21%), 중국(11.7), 독일(8.06%), 한국(1.79%) 순임		
	진출방안	시장을 선점 중인 일본, 이스라엘, 독일 제품과 차별성 중심 마케팅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4	HS Code	8541	수입관세율(%)	-
태양광패널	수입액('18/US\$백만)	1,114.8	대한수입액('18/US\$백만)	6.4
	선정사유	EU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상 수요 증대 전망		
	시장동향	202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수요증대 전망		
	경쟁동향	독일 및 아시아(일본, 중국) 제품 인지도 높음		
	진출방안	소량주문 거래 및 물류 방안 마련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5	HS Code	842139	수입관세율(%)	0.0%
산업용 공기 청정기	수입액('18/US\$백만)	286.2	대한수입액('18/US\$백만)	0.3
	선정사유	헝가리에 공장 등 생산설비 시설 증가에 따른 산업용 공기 청정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헝가리 자국 기업 중 좋은 품질의 산업용 공기 청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수입 의존도 높음		

	경쟁동향	독일(2018년 시장점유율 73.82%) 지배적임		
	진출방안	24시간 내내 운영돼야 하는 경우도 있어 품질과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갖춘 진출 전략 필요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6	HS Code	871160	수입관세율(%)	0.0%
	수입액('18/US\$백만)	11.9	대한수입액('18/US\$백만)	-
전기 스쿠터	선정사유	헝가리에서 바이크, 스쿠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이며, 이는 특히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가중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단거리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음		
	시장동향	해당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로, 2019년 1월부터 EU가 중국산 바이크에 대한 관세를 18.8%~79.3% 구간의 포괄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중국산 대체품으로 진출 공략 필요		
	경쟁동향	중국이 선점 중이나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		
	진출방안	전기 스쿠터 및 전기 바이크 공유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 운영 기업들의 대량 구매 수요 점검 필요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7	HS Code	847130	수입관세율(%)	-
	수입액('16/US\$백만)	494.4	대한수입액('18/US\$백만)	0.1
토지 품질 측정기	선정사유	2016년부터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농업을 디지털화 및 현대화하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임		
	시장동향	정부는 환경, 토양 및 물의 배수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중임		
	경쟁동향	중국 및 유럽 내 제품이 시장 선점		
	진출방안	이러한 시점에 한국기업들이 헝가리 농업계가 원하는 장비를 제공한다면 향후 헝가리 농업이 고도화될 때까지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망국가	헝가리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HS Code	-	수입관세율(%)	-
관광 산업	수입액	-	대한수입액	-
	선정사유	헝가리 관광 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지정하고, EU 기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적 투단행 중		
	시장동향	헝가리 관광 산업은 2018년 GDP의 약 8.5%를 차지, 2013년 비중이 6.9%였던 것에 비해 지속 증가 중		
	경쟁동향	헝가리 내국 관광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스트리아·영국 등 서유럽 국가에서 각종 헝가리 관광 상품 운영 중		
	진출방안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 개발(차량, 투어, 가이드 등)하며, 특히 헝가리 지방도시 프로그램과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연계 프로그램 개발		
품목명 2	HS Code	-	수입관세율(%)	-
서비스공유센터 (SCC)	수입액	-	대한수입액	-
	선정사유	헝 정부의 전략적 투자유치 분야로 많은 헝가리인이 다수 외국어 구사(헝가리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할수록 자기가치가 높아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외국어에 관심이 많음)		
	시장동향	British Tobacco, Nuskin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UN 기구에서 헝가리로 서비스 공유센터(SSC)를 이전 중		
	경쟁동향	다수 글로벌 기업이 헝가리로 SSC 이전, 최근 헝 실업률이 3%대로 진입한 만큼 인력확보가 가장 큰 관건임		
	진출방안	글로벌 한국기업들의 서비스센터 및 유럽 지역 관리센터를 헝가리에 설치하여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관리 플랫폼 구축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동유럽 의료·보건 분야 패키지 사업(연중)

- 추진방향 : 조사-마케팅 연계, R+R(Research + Reflection)형 사업
- ① (조사) 동유럽 의료·보건 분야 진출전략 상시 모니터링(연중)
 - 주요 내용 : 동유럽 의료기기 조달, 프로젝트 시장 동향 모니터링 조사
- ② (국내상담회) 동유럽 의료기기·프로젝트 구매단 파견(상반기)
 - 주요 내용 : GBMP 등 본사개최 상담회에 현지 주요 발주처 및 디스트리뷰터 방한 설명회·상담회 개최
 - 참여무역관 : 동유럽 무역관 8개 무역관(V4+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 ③ (사절단) 동유럽 현지 의료기기 사절단 사업(하반기)
 - 추진방향 : 상반기 국내 상담회에서 발굴된 유망사례 및 협력수요 현지 초청
 - 주요 내용 : 현지 프로젝트 조달 설명회 및 1:1 상담회 개최
 - 참여무역관 : 유망 프로젝트 및 의료 분야 유망 전시회 개최 무역관

헝가리 투자진출 지원사업(연중)

- 추진방향 : 대(對)형 수출의 70% 이상이 진출기업으로 수입 증으로 대(對)헝가리 투자진출 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① 대·중·소 동반 진출 지원
 - 주요 내용 : 삼성 SDI, 한국타이어 등 헝가리 신규·증액 투자 수요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현지진출 설명회 개최 및 인콰이어리 해결
- ② 자산 인수형 M&A 지원
 - 주요 내용 : 헝가리 투자진출 인허가 간소화 및 공사기일 단축 등을 위해 헝가리 현지 자산(공장) 인수 지원
 - 지원내용 : 매물 발굴, 매물 실사 및 계약서 발굴, M&A 추진비용 지원 등
 - 협력 : 본사 MnA 지원팀
- ③ 동유럽 진출기업 납품처 다변화 지원 상담회
 - 주요 내용 : 헝가리 등 동유럽 진출기업 중 납품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 현지 발주처와의 퓌포인트 상담지원
 - 참여무역관 : 동유럽 무역관 8개 무역관(V4+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헝가리 수교 31주년	2020.2.1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헝가리 2021년 예산심의	2020.6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농기계	농기계 전반	헝가리 농업 및 관련 기계 전시회(AGROMash)	2020.1.22 ~ 25/부다페스트
건축	건축 자재, 인테리어 관련 제품	헝가리 건설 및 인테리어 전시회(Construma)	2020.4.1 ~ 5/부다페스트
산업 일반	일반 기계	헝가리 일반 기계 전시회(Industrial Days)	2020.5.5 ~ 8/부다페스트
치과	치과 관련 의료 기기	동유럽 치과기자재 박람회(Dental World)	2020.10월 중(미정)/부다페스트
자동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반	헝가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시회(Automotive Hungary)	2020.10월 중(미정)/부다페스트

부록 **對헝가리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한-헝가리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헝가리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헝가리의 잠재력

- 7개국*과 국경을 면한 중동부 유럽의 거점, 서유럽·발칸·CIS로의 진출 유리
 - *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 親기업정책 및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오르반 총리(2018년 4월 재취임으로, 4선 3연임)의 정책 기조
 - * 유럽 최저 법인세 9%(2016년까지 19%), 고용주세의 단계적 감면 추진 중(2016년 27% → 2019년 17.5%)
- 2017, 2018년 경제성장률 4%대 기록, 경제성장 모멘텀 지속
 - * IMF 기준 경제성장률, (2017년) 4.14%, (2018년) 4.94%, (2019년) 3.6% 전망, 2020년 2.7% 전망
- 유럽 및 전 세계의 2차 전지 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부상 중
 - * 전 세계로 2차 전지 산업 확대 기조(2017년 126GWh → 2025년 1,690GWh)
 - *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두산전자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진출 / BMW, Benz, Audi 독일 차메이커 3사 진출

주요국의 대(對) 헝가리 경제협력 현황

-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헝가리와의 협력기반을 구축 중




주요국의 대(對)헝가리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르반 정부는 주권의 EU 이양 및 유럽중국 형태의 EU 통합에 반대하고, 이민, 난민, 인권 등 분야에서 EU내에서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다만, 헝가리는 EU 보조금 수혜국으로서, 국민들의 60% 이상이 EU 잔류를 희망하고 있어, EU 탈퇴 가능성은 희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말 미국이 헝가리 고위 공직자들을 부패 연루 혐의로 사증발급 거부자 명부에 등재한 조치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색됨 • 2016년 6월 오르반 총리는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래, 대미(對美) 관계 개선 기대-트럼프 정부 이후 헝가리-미국 관계가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중유럽 대학(CEU) 문제 등 부정적 요소 잔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및 NATO 회원국으로서 공동 노선을 취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 대(對)러시아 제재에는 부정적 • 헝가리 내 원전 2기 건설에 러시아 기업이 참여하는 등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며, 헝가리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가스의 80%, 원유의 100%)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헝가리 제3의 교역국임 •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약 20만 명의 헝가리계 소수민족이 거주 중인 바, 최근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양국 관계 다소 경색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대(對)헝가리 주요 투자 분야는 화학공업, 금융, 통신, 물류, 자동차 산업이며, 헝가리에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헝가리는 2015년 6월 유럽 국가로서는 최초로 중국과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1월 제6차 CEEC-중국(16+1)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 중임

헝가리 경험과 연계한 중동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 **현재 중동부 유럽은 서유럽과는 차별된 시장으로 경제성장 및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과정, 향후 성장 잠재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역내 무역 확대를 위해 회원국 간 상호협력 강화 • 한-EU FTA가 적용되는 한편, 이후 생권조약, CE인증 등 EU 표준을 공통으로 준수하는 시장으로 헝가리를 EU 시장의 진출 테스트베드로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공동번영을 위해 회원국에 배정된 EU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프로젝트 대거 추진 • EU 집행위는 215억 유로(2014~2020년), 201억 유로(2021~2027년)를 헝가리에 배정하여, 헝가리 인프라 수준을 EU 평균으로 개선 유도 • EU 환경 기준 등 EU 규범 충족을 위한 인프라·건설 시장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유럽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 기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신제품·더 나은 제품'에 대한 구매수요 증가 * 경제성장률(IMF) : (2015) 3.5% → (2016) 2.3% → (2017) 4.1% → (2018) 4.9% → (2019) 3.6% → (2018) 2.7% * 기타 경제지표 : 실업률 3.8%(2018), 평균임금 증가율 13.1%(2017), 최저임금 15.0%(2017), 신차판매 21.0%(2017), 부동산 15.5%(2017/부다페스트), 온라인구매 34.1%(2017)

✓ **경제 활성화로 인한 구매력 성장에 따른 소비 수준 향상**

- 기업투자가 내수 진작으로 선순환, 생산성 강화 등 경제의 질적 성장에 집중
-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의 증가는 유가 상승, 포인트 약세 등으로 대외경제 악화로 인한 효과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기따른 임금 상승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지속 증가,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헝가리의 구매력 신장

✓ **대한(對韓) 우호적 분위기에 따른 협력수요 증대**

- EU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동방 국가와 협력 천명
- 높은 EU역내 FDI 및 교역 의존도 개선 노력, 2008년 유럽 경제위기 당시 서유럽의 대규모 자본 회수로 IMF 등 구제금융 경험
- 헝 정부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을 천명하고, 중, 러, 한, 인도, 싱가포르 등과 협력 강화에 주력
- 한국은 2018년 상반기 기준 헝가리 외국인 투자 1위국으로 도약
 - *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립을 위해 투자, 대·중·소 동반 진출 형태로 협력 중소기업 진출 확대 지속 전망

✓ **헝가리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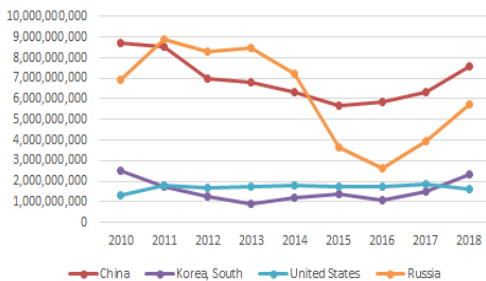
- 헝가리 외국인 투자는 민간 축적자본이 적은 헝가리 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3년간 24.6% 증가
-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공급사 투자유치 가속화, 자동차·부품 분야는 투자유치 1순위
 - * 주요 프로젝트 : Mercedes Benz 1.1억 달러, 아우디 1,100만 달러, BYD 2,200만 달러, Bosch 1,200만 달러 등
- R&D 센터, 기술 강화 투자 인센티브 등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 변화 등, 국가 성장의 신동력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2019년 한-헝 수교 30주년, 한국은 대(對)헝가리 투자국 1위 기록

- 1989년 2월, 양국 정식 외교관계 수립,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면서 양국 간 무역·통상 관계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 헝가리의 EU 가입(2004년)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협정 체결(2005년) 및 2011년 한-EU FTA 발효로 양국 간 무역교류의 문턱이 크게 낮아짐
- 한국은 아시아 최대 헝가리 협력국으로 양국 간 1·2차 경제공동위 개최
-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두산전자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로, 한국은 2019년 헝가리 외국인 투자 1위국으로 도약

한국-헝가리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헝가리의 연도별 비EU 주요국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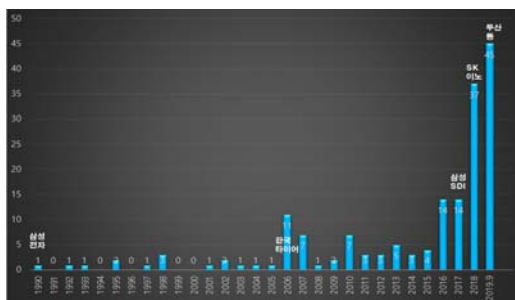
- 2018년 헝가리 3대 수입국은 독일(300억 불), 오스트리아(76억 불), 중국이 제3대 수입국이며, EU역내 교역액은 899억 불로 총 수입액의 73.9% 차지
- 비EU 국가 중 2018년 헝가리의 주요국 수입액은 중국으로부터 약 75억 불, 러시아 57억 불, 한국 23억 불, 미국 16억 불 규모
- 한국은 전년도 대비 58.1% 증가, 점유율은 1.92%. 중국의 증가율 19.75%, 러시아 46.1%, 미국 -11.45%와 비교 시 상당한 증가 수준

2. 대(對)헝가리 한·중·일·독 수출 상위5개 품목 경합도(HS코드 2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의약품	평판디스플레이	축전지	기타 기계류	정밀기기
중국	평판디스플레이	축전지	정밀기기	유기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독일	평판디스플레이	축전지	기타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의약품
일본	축전지	평판디스플레이	기타 기계류	철강 제품	조제우모·인조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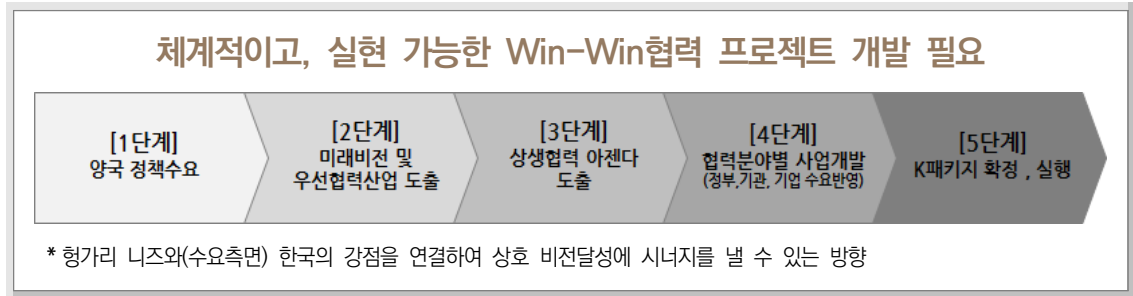
- (수출경합도) 대(對)헝가리 수출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은 중국 3개, 독일 4개, 일본 3개 품목이 중복

3. 대(對)헝가리 기업 수 증가 추세(1989~2019년 9월)



- 헝가리 외국인 투자의 89%가 유럽국의 투자
- 한국의 헝가리 직접투자 전기차 배터리 제조 분야에 집중(삼성 SDI, SK, 두산 등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진출 가속)
- 한국은 2019년 비EU 국가 중 헝가리 투자 1위국 기록, 특히 2016년부터 한국기업 수 급증
- 헝가리 진출기업 수 : 한국 173개사(2019년) VS 중국 847개사 이상(2019년)

나. 한-헝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EU 기금 215억 유로(전체의 6.1%) + 헝 정부의 매칭 예산 38억 유로 : '동방정책'+'친 기업 경제 정책'추진 → 『세체니 2020 목표 달성』

헝가리의 협력수요 산업

협력 우선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지역 및 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기술·생산능력 향상 - 자동차, 2차 전지 산업 중심 육성, 관련 일자리 및 R&D 산업 육성 추진 ◆ 지역 및 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개발 -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개발 추진 ◆ ICT 강국 ◆ 높은 전문인력/기술 보유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소비재	의료장비 및 의약 제품	
환경 및 에너지	ICT	

부록

※ 헝가리 중장기 경제 정책 : 세체니(Szechenyi) 2020

- 헝가리는 Europe 2020의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체니 2020'이라는 중장기 경제 정책을 마련, 2014~2020년 EU 펀드 집행 실시
 - Europe 2020 : EU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고용, R&D, 교육, 기후·에너지, 빈곤퇴치 등 5개 분야에 EU 집행위가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2020년까지 목표를 부여하고 있음
 - 2014~2020년 세부 집행계획(Operational Program, OP)별 배정예산

세체니 2020 목표

구분	내용	목표(2020년)
1. 고용	20~64세 인구 중 고용률	75
2. R&D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	1.8
3. 환경·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	10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4. 교육	18~24세 인구 중 조기 졸업 비율	13
	30~6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율	
5. 사회통합	빈곤 및 사회적 배타 위험 인구	10

우리나라도 중부 유럽의 거점 헝가리와 경험개발 노력(동유럽, 서유럽, 발칸, CIS 진출의 교두보)

* 정부, 기관, 기업단계로 이어지는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G2G, B2G, B2B 협력전략부재


(최근 양국 G2G 레벨 회담에서의 주요 협력논의 분야) 전자무역, 방산, 인프라, 한국기업의 헝가리 투자 확대, 중소기업 협력 강화, 보건의료, R&D 협력, 자동차, IT, 관광 등

헝가리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 우선 산업		구체적인 역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지역 및 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 경제발전 경험 및 공유, 전파 역량보유 - KSP, 한류 등
소비재	의료장비 및 의약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전 세계 상위권 ◆ 전통적 ICT 강국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 11위(Business Insider, 2017년 6월)
환경 및 에너지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전문인력/기술 보유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한-헝가리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헝가리 경제상황	유럽 경기회복세에 따른 고성장 경제(2018년 4.0%, 2019년 3.3%)			
	투자多 (EU 기금·FDI)	고용多 (실업률 3.6%)	소득多 (평균임금+13.1%)	소비多 (신차·부동산·온라인)
최근의 시장변화	EU 기금·공공조달·중소형 프로젝트	유럽 생산기지 역할, 배터리 수주경쟁 심화	신제품·더 나은 제품 수요 전환	
진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형 Developer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지원 ② 공공병원 납품 및 보험 적용 제품 등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터리 산업 대중소 동반 투자 진출 지원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산 인수형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K의료·K뷰티·K푸드 한류 활용 성공 사례 창출 	



한-헝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동반자 역할

한-헝가리 비전달성을 위해 양국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한 단기-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행필요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교역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험

양국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교역 및 투자 환경 개선 필요

① 한국기업의 헝가리 투자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정책 수요) 최근 경험위에서 논의된 한국기업의 헝가리 진출 확대 제안, 기업 활동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은 과제로 남아
 - * 한-헝 2차 경험위(2016년 2월 25일), 헝 측은 한국기업들의 헝가리 진출 확대 요청, 이를 통한 헝가리 산업 인프라 개선 및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
- (기업 수요) 2019년 9월 기준 헝가리 진출 한국기업은 173개*로 4년 전 대비 약 3배로 증가
 - * 2015년 63개사 → 2016년 77개사 → 2017년 91개사 → 2018년 128개사 → 2019년 9월 173개사
 - 기업들은 ① 현지 인력난, ② 잦은 세제 변화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건의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사례

- (예시1) (현지 인력난) 헝가리 실업률 3%대 유지에 따라, 현지 인력 채용이 어려우며, 제3국 인력 채용하여 활용 중이나, 비자, 숙식 지원, 언어,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노무 관리비 증가
- (예시2) (세제 변화)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각종 복지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2019년에 개정된 Cafeteria benefits 관련 법, 각종 지방세 등

- (협력 방안) 단기적으로 헝 정부의 한국기업이 신청한 제3국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축소 및 신속한 처리 필요, 세금 혜택 등을 한국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 확대 추진
 -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해당 지역의 직업학교, 대학교의 등 우수 인력 양성기관과 한국기업 간 협력 필요

② 헝가리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및 방산 분야 협력 등 수출 확대

- (정책 수요) EU 기금 투입으로 인한 헝가리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헝가리 국방비 확대 편성 및 Zrinyi 2026(군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 적극 검토 필요
 - 양국 정부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민간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 간 교류 시 관련 분야에 대한 논의 필요
- (한국 역량) 한국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헝가리의 이미지는 긍정적,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비EU 국가에 대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없음으로 입찰 참여 시 불이익 없음

- (협력방안) 헝가리 인프라 프로젝트는 헝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경우 다수, 헝가리 국영기업-관련 한국기업 간 교류 및 양국 정부 간 협력 필요

나. [B2B] 양국기업 간 산업협력

① 제조업(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설) 협력

- (시장 수요) 헝가리에 삼성 SDI·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산업 대중소 동반진출 확대, 헝 투자청 (HIPA)은 부가가치 창출 및 R&D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중
 - 헝,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설 등을 제조업 발전 동력으로 정부 차원의 해당 산업 육성정책 추진, 관련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등으로 연결
 - * 헝가리는 외국인 투자를 활용한 제조업 기반의 수출중심형 모델을 구축
 - * 2017년 대(對)헝가리 외국인 투자는 EU에서 2번째 높은 수치 기록(EBRD)
- (현지 역량) 헝가리의 경제성장률은 3~4%대를 기록하며, 매우 안정적, 우수한 인력 확보 및 중동부유럽의 테스트베드 및 R&D 거점 역할 수행
 - 헝가리는 7개국과 면해 있는 지리적 이점, 유럽 경기회복에 힘입은 가계소득, 소비, 대외수입 등이 증가세 있음

헝가리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전망

- ◆ 자동차 산업은 헝가리 제조업 생산의 30.2%를 차지, 하여 헝가리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헝가리 내 712개사의 관련기업 소재, 15만 5천만 명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독일 완성차 업체 3사(BMW, Audi, Benz)가 헝가리에 제조 시설을 운영 및 신규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중유럽 지역에서의 자동차 산업 허브 국가인 슬로바키아(90만 대 생산), 체코(120만 대 생산)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헝가리 자동차 분야는 산학 R&D 또한 활발하며, Bosch의 자동주행 차량트랙을 비롯한 R&D 투자, 중국 BYD 및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자동차 산업은 헝가리에서 투자유치가 가장 활발한 분야임

- (협력 체계) 투자진출기반 양국 주력 기업 중심 협업 기반 조성

단계별 방안	전기차 배터리 분야	자동차 분야
협력 프레임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 중심으로 헝가리에 생산 시설 확대 → 관련 협력 중견·중소업체 진출 분야로 확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분야 헝가리 투자진출 활성화 → 타 유럽 국가로의 진출 거점으로 활용
1단계	(G2G) 공장증설, 생산 확대 등에 관한 규제 완화,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원 등 합의	(B2B)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한국기업 간 협력 기회 발굴 및 추진

2단계	(B2B)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유럽 시장점유 확대	관련 한국기업들의 현지 투자
3단계	중견·중소 관련 업체 진출, 유지·보수 지속	타 유럽 국가로의 진출 거점으로 활용
추가 방안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 생산 거점의 Key 플레이어로 성장	유럽 외 CIS 등으로의 수출로도 확대

2 소비재 유통

- (정책 수요) 한국 문체부의 헝가리 대학 한국어과에 한국 서적 기증 추진(2019년 11월), 재향 한국문화원은 매년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
- (시장 수요)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에 따른, 이국적인 제품에 수요 증가
- (한국 역량) 헝가리 내 K-pop,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이 영화, 음식, 화장품 등에 대한 수요로 연결
 - (음료) 현지 메이저 유통망 진입을 통한 헝가리 전역으로 납품 확대
 - (화장품) 헝가리 주요 화장품 블로거 상담유치 및 '한국문화의 날' 연계 수출 지원
- (협력 전략)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인증 지원사업 필요
 - 새로운 소비욕구 타깃, K뷰티·K푸드 수출확대 필요
 - 현지 K-Beauty 제품 관심 증가, 韓중소 화장품 제조기업 상당수 현지인증 부재로 연내 실제 성과 창출에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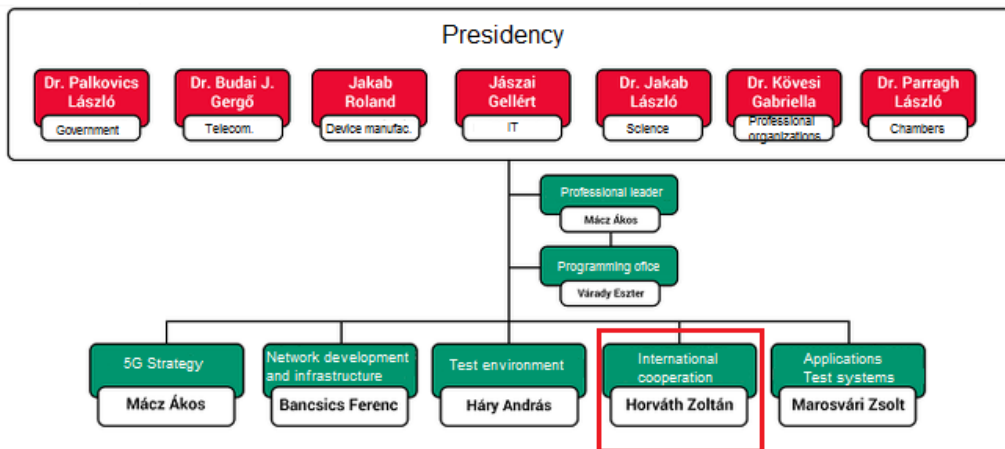
주요 협력 사례 및 시사점

- ◆ [사례1] 헝가리 주요 유통체인 납품 성공 사례 : D사(생과일 주스)
 - ▶ (2017년) 헝가리 바이어 인콰이어리로 한국산 과일음료 납품가능 업체 발굴·연결지원 ⇨ 중소기업 중심 유통 (7.2만 달러 수출 성공, 신시장 개척 사례)
 - ▶ (2018년) Shell 주유소 개척을 통한 메이저 유통망 진입 성공(13만 달러 수출)
 - ▶ (2019년) Spar·Auchan·Tesco 등 헝가리내 메이저유통망 공급 확정 ⇨ 특히, Spar 유럽본부에서는 유럽 소매장 확대·공급방안을 검토 중
- ◆ [사례2] 화장품 업체 2018년 헝가리로 해외 첫 수출 : B사(화장품)
 - ▶ 인증(CPNP) 9개 취득으로 유럽 전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3 ICT 협력

- (정책 수요) 2018년 헝가리는 전자무역 및 입찰 관리 시스템을 공식 개시*, 2017년 3월, 정부는 5G 코알치오**(5G Koalíció)의 설립을 장려하여 해당 지역의 관련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5G 네트워크의 주요 배치는 2020년 이후로 예상
 - * 2014년 EU가 전 회원국에 전자무역 및 입찰 관리 시스템을 2018년 10월까지 구축 요청하며, 이에 따라, 헝가리도 2017년 11월부터 국영기업인 NEKSZT을 설립을 통해 시스템 재구축
 - ** 정부가 5G 네트워크 개발 기반을 위한 구성된 전문가 그룹(민간 시장, ICT, 자동차 산업계, 시민 단체, 대학, 연구소, 정부 및 지방 정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
- (기대 수요) 대형 기업들의 시스템 및 업무 디지털화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 아울러 5G 도입을 앞두고, 화웨이의 지위가 약화된 상황, 기술 제공 업체 또는 장비 제공 업체로서 한국기업들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국 역량) 통신장비 제조업에 경쟁우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통신강국으로서 관련 서비스 및 활용 측면에서 역량 보유
- (협력방안) 5G 코알치오 대한 이해를 통한 헝가리 시장 접근 필요

5G 코알치오 체계



4 의료 바이오 분야 협력

- (의료 기기) 대형 의료기기 시장은 2017년 말 기준 740,4백만 달러로 2012년 558.3백만 달러에서 32.6% 증가
 - 1인당 의료비 지출이 2013년 1,019달러에서 2020년 1,129달러로 확대 예상하며, 단,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인 9.3%에 미치지 못한 7%이나,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8.66%, 2020년 기점으로 20.0%에 달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지출 지속 확대 예상
- 헝가리 정부는 2009년부터 공식 지정한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며, 품목에 따라 98%, 90%, 80%, 70%, 50%의 보조금 혹은 정액 보조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헝가리 국민들은 보조금 외 차액만 지급하면, 의료기기 구입 가능
- (의료 시스템) 현지의 협력수요 및 성장 잠재력이 크며, 보건의료 및 4차 산업 연계 시 시너지 기대
 - 헝가리 국민은 거주지 인근 공공병원에서 고가의 시술을 제외하고, 모든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 받으며, 사설 병원은 타국 의료 고가 기술 서비스 필요 시 이용
 - 헝가리의 국립 건강보험 NHIF(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의 지원을 받는 병원의 수는 2018년 기준 공공병원 149개, 사립병원 283개로 총 432개부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 유통 구조



- (협력방안) 공공조달 참여 지원, 인허가 취득지원, 비즈니스 기회 확대
 - 부다페스트 병원 현대화 및 신축 프로젝트(Super Hospital Project), 2016년 헝 정부는 부다페스트 건강 증진 프로그램(Healthy Budapest Program)을 승인, 국가경제부 및 인적자원부로 실행권을 위임한바,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발굴
 - * 동 프로젝트는 부다페스트 동남, 동북, 서남, 서북 구역에 각 1개씩 현대적인 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병원을 현대화 혹은 신규 건립 예정
 - 대사관과 협업하여 의료·보건 분야 핵심 네트워크 구축 및 납품추진
 - 의료 분야 핵심 정부인사 초청 세미나 및 등록벤더 1:1 수출상담

주요 협력 사례 및 시사점

◆ [사례1] K사(Bone Maker) * 유사 케이스 발굴, 지원 확대 추진

- ▶ 현지 의대에 임상실험 의뢰(2016년~) ⇨ 치과기자재 수출로드쇼 참가(2017년 5월/헝) ⇨ 동유럽 등 7개국 키닥터 초청 시연회 개최(2017년 10월/헝)
 - * 사업 참가 이외에도 현지 장기 체류, 인근국 마케팅 실시
 - * 높은 의료 분야 R&D 역량에 비해 임상이 용이하고, 한국의 1/6 수준 비용, 2019년 2월 유명 치과저널 게재를 목표로 임상 논문 준비 중
- ▶ 2017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수출성약
 - * 2018년 헝가리 포함 중동부유럽 시장에 10만 불 규모 수출 달성 예상(대당 5천불)

다. [B2G] 에너지·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① 협력수요

- (정책 수요) 헝가리 신재생 에너지 정책
 - 헝 에너지원은 화력 64.5%, 원자력 22.3%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14.1% 수준이며, 헝 정부가 2012년 발표한 국가 에너지 전략 2030(NES National Energy Strategy)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0년 14.6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헝 정부는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 METAR(발전차액보전제)를 2016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0.5~1.0MW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등을 지원 중
- (시장 수요) 헝가리 태양광 에너지 발전 규모는 2016년 기준 220MW이고, 전체 에너지원 비중은 0.1%로 낮은 수치나, 2020년까지 규모가 700MW~1000MW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음

헝가리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명	분야	기간	규모(유로)	지역	담당기관
소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4건)	자원개발	2017~2018년	610만	부다페스트, 돔보바르 (Dombovar)	헝가리 정부
LNG Terminal Construction MAHART-ERD	자원개발	2018~2019년	미공개	부다페스트, 에르드 (Erd)	Mahart Zrt. (Public Water Transportation Company)

헝가리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현황

프로젝트명	분야	기간	규모(유로)	지역	담당기관
Budapest-Airport Railway Construction	지하철·철도	(총 기간) 2019~2022년 (입찰시기) 2019년 : 건축 2020년 : 디자인 2021년 : 건설	250백만	부다페스트	NIF Zrt. (National Infrastructure Company)
HEV-M2 Subway Connection	지하철·철도	(총 기간) 2018~2022년 (입찰시기) 2018년 : 디자인 2019년 : 건설	400백만	부다페스트	BBK (Budapest Public Transportation Company)
M1 Subway Reconstructon and Extention	지하철·철도	(총 기간) 2019~2015년 (입찰시기) 2018년 : 디자인 2019년 : 건설	100백만	부다페스트	BBK (Budapest Public Transportation Company)
Budapest South Gate Construction Project (Déli Városkapu Fejlesztési Program)	문화시설	2018~2023년 (입찰시기) 2018년 : 건축 2019년 : 디자인	200백만	부다페스트	KKBK Nonprofit (Public Comanpy for Large Project)

2 협력방안

- 실현 가능성 높은 중소형 프로젝트 성사를 위한 Developer 발굴·지원
- (배경) 헝가리어 입찰서류 준비, 마감 1개월 전 입찰 정보 공개 등 애로사항 감안 시, 사전 정보 입수 및 유경험 Developer 발굴 필요
- 형 정부의 저금리 대출과 장기간 구매계약에 힘입어, 급성장 중인 중소규모(0.5~5MW) 태양광 프로젝트 납품 지원
 - GGHK, Green Expo 등에 태양광 프로젝트 방한 구매단 5회 파견
 - Developer 밀착지원으로 현지 중소형 프로젝트 성사사례 다수 창출

☞ PV 모듈 납품 대표 사례 : Savar Szent Lazlo 병원 프로젝트(2017년, 48.3만 볼), SzKC PV 프로젝트(2017년, 43.4만 볼) 등, 2018년 약 100만 볼 추가 수출 기대

- (추진계획)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분야별 Developer 발굴 확대 및 현지 진출기업 대상 인근국 중소형 프로젝트 소개 병행
 - 건설·ICT·교통·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가능 현지 파트너 추가 발굴

- 우리 진출기업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일시 진출한 중소형 건설 프로젝트 벤더들에게 인근국 프로젝트 참여기회 발굴·전달

* 삼성 SD(삼성엔지니어링·등록벤더), SK이노(현대엔지니어링·SKE&C·등록벤더)

☞ **A사 사례** : SK이노 기반 공사 형 건설업체로 공사 진행 중 우리 중소 건설기업의 경쟁력 확인, 고위험 폐기물 처리장 등 기 수주 건설 프로젝트 관련 우리기업과의 협력 타진 중

라. [국민] 동반자 관계 형성과 발전

1 상생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방안

- ① 정부, 기업,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한국문화원 외 K-Beauty, K-Pop 등 한류콘텐츠(춤, 노래, 화장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② 한국문화원 K-콘텐츠 강좌 오프라인 교육지원(장소 섭외 및 강좌 홍보 등)
- ③ 양국 교육기관(대학교, 사설 기관) 간 MOU를 통한 학생 교류 및 한국어 강좌 확대 (온라인, 오프라인)

2 CSR 활성화

헝가리 진출 국내 주요 기업의 CSR 활동 현황

기업명	CSR 활동
한국타이어	- 부다페스트 구급차 노후 타이어 무료 교체 지원
삼성전자	- 부다페스트 한인 학교 후원사로서 TV 등 기자재 기증과 입학식/졸업식 지원
재형상공회소	- 헝가리 한글학교 장소 대여비 지원 - 헝 엘메 대학교 한국어학과 10주년 행사 지원(물품 기증·재능기부 등) - 한국기업-엘메 대학교 채용박람회 추진 - 한인유람선 참사 시 물품 및 필요 인력 투입 등

Ⅲ. 향후 對형가리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형가리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2014년 및 2016년, 한-형 경협위* 두 차례 개최 → 향후 정례적으로 개최
- Sub분과도 만들어, 분야별 트러블 슈팅, 신규과제 발굴, 실행력 제고
 - * 양국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두가 되는 거버넌스 스킴

② 단기적으로 현지 KOTRA를 KBP(Korea Business Plaza) 化하여 상시협업

- 중장기적으로 물리적 Shared Service Center 구축
 - * B2B 과제는 해외 KOTRA 무역관을 통해 실시간 이행(G2G 과제, 대사관 전담)

③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숲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향후 한-형 정상 회담 시 K패키지 내용을 공동성명 형태 발표
 - * 양국 정부부처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MOU 체결 병행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세연	과장	부다페스트무역관	+36-1-799-5402	seyeonlee@kotra.or.kr

KOTRA자료 20-047

2020 국별 진출전략 **헝가리**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93-7(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